DBT Magazine
2014 Winter 화승그룹 I Vol.37 겨울호

화승그룹 이상

화승그룹
HWASEUNG

돌아온 길을 돌아보며
아래를 바로 보는 지혜

입사 채 1년도 되지 않은 준비된 미생–
화승엑스월 호스시트사업팀 변성화 사우

Do Better Tomorrow

Turn around 2014

2014 Winter vol.37 2014년 12월 15일 발행

발행인	현승훈
글 · 사진	DBT 사람들
기획 · 진행	화승그룹 회장실 박동호
	화승그룹 홍보팀 김병호, 박치선, 심일욱
	하이미디어 P&I 이영진, 이진우, 한수빈, 정윤정
편집 · 출판	(주)하이미디어 P&I(02–795–3364)
디자인	백선영, 장윤희, 이예슬
사 진	NAVI STUDIO(02–511–7277)
캘리그라피	예슬리
헤어&메이크업	서울문화예술전문학교 뷰티예술학부
	(지도교수: 송승연, 헤어&메이크업: 박종희, 김윤지, 신희경)
프로세스	하이테크컴
인 쇄	(주)키움프린팅

펴낸 곳

발행처 화승그룹(www.hwaseunggroup.com)
주소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9 (연산동) 장천빌딩 화승그룹 회장실
전화 051–850–7037, **팩스** 051–850–7001
E–mail iwsim9025@hsrna.com

더 큰, 더 높은 이상을
더 멀리 내다보는 담대함

화승의 IT, 그 다음을 생각하는 기술자–
화승네트웍스 기획총무팀 하덕호 대리

和承가족에게 드리는 12月

현승훈의 화담(和談)

사람의 인생에는 자신이 태어나기 전, 과거를 이르는 전생(前生)과 현재의 금생(今生), 그리고 죽은 뒤의 생애를 가리키는 내생(來生)이 있다고 합니다. 불교(佛敎)에서는 이것을 통틀어 삼생(三生)이라고 하지요. 우리 인생의 삼생은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금생을 보면 그 사람의 전생을 알 수 있고, 이와 함께 내생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생은 바로 인과(因果)에 달려있고, 그 결과는 금생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며 정작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자신이 처한 운명만을 탓하기도 합니다.
시간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잃어버린 건강은 음식으로, 잃어버린 재산은 근면검소(勤勉儉素)로 회복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반성을 통해 미물(微物)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아성찰을 위한 공(功)을 쌓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비 또한 경험의 기회로 삼고 천 마디의 말보다 한 가지 실천만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을 위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남을 돕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을 근본으로 하는 그 자세가 봉사이자,
존경이며 바로 우리가 말하는 행복입니다.

화승가족 여러분,
하루에 최소 남을 위한 10가지 선업(善業)을 하십시오. 길거리의 자그마한 쓰레기를 줍든, 직장동료를 미소로 반기든, 초행길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든 남을 위한 그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꾸준한 노력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자기반성과 자아성찰 그리고 끝없는 정진을 통해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화승인(和承人)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평소 지니고 있었던, 성철 큰 스님의 어록(語錄) 몇 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마음으로 읽으시고, 이 글귀들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 큰 지침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맑은 기운 가득한 12월, 가정과 회사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조금 해보고 안 된다 하지 말고, 꾸준하게 열심히 해 나가면 무엇이든 이루어지고 밝아진다.
- 싸리 작대기 하나는 힘이 없지만 여럿 모이면 잘 부러지지 않는다.
- 아내와 남편, 두 번째 부모, 세 번째 자식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집안이 평안해진다.
- 사람에게 인과(因果)가 있을 뿐이지 결정적인 운명은 없다. 모든 결과는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결과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힘써 노력하면 좋은 결과는 자연히 따라온다. 자력을 다했을 때 타력이 나타난다.
- 작은 일이라도 끝을 마치지 못하면 큰일 또한 끝을 맺지 못한다.
- 참으로 사는 첫걸음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데 있다.
- 자기의 과오는 항상 반성하여 고쳐 나가고, 다른 사람의 시비는 절대로 말하지 않아야 한다.
- 천 마디 말보다 한 가지 실행. 실행 없는 헛소리를 천 번 만 번 해도 소용이 없다.
- 베풀겠다는 마음으로 고르면 누구라도 상관없다. 덕 보겠다는 마음으로 고르면 제일 엉뚱한 사람을 고르게 된다.
-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은 것들에 미쳐 칼날 위에서 춤을 추듯 산다.
- 근수역행(勤修力行), 남을 위해 힘써 자신을 닦고, 닦은 바를 애써 실천하라.
- 날마다 꾸준한 108배는 자신의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다. 매일 108배를 통해 자신을 자정(自淨)해야 한다.
- 남을 돕는 것이 근본이다. 그래서 모든 생활 기준을 남을 돕는데 두어야 한다.

– 성철 큰 스님 –

2014년 12월 1일
현승훈 S. H. Hyun

현승훈의 화담(和談)을 소개합니다

'현승훈의 화담(和談)'은 직원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는 현승훈 회장의 경영 실천 의지가 담긴 편지글입니다.
2014년 6월부터 한 달에 한 번
국내외 전 계열사 직원들에게 전달되며,
평소 현승훈 회장이 생각해 오던 그룹과 그룹 문화,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오롯이 담겨있습니다.

6月
사람의 도리_ **공관신민혜(恭寬信敏惠)**
"사람의 도리(道理)를 일컫는 이 말을 항상 되뇌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야합니다. 마음을 바로 쓰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행복입니다."

7月
효도_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자주 연락하십시오. 수줍더라도 '사랑한다' 용기 내어 말해 보십시오. 그것이 부모님에 대한 가장 큰 효도(孝道)입니다."

8月
자기를 바로 보라_ **인연(因緣)**
"성철 스님의 말씀 중, '자기를 바로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소신 있고 주위와 조화로운 삶으로 자신을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거짓 아닌 진실된 인연(因緣)들과 함께 여러분의 앞날에도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 믿습니다."

9月
순수한 마음 _ **정성(精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가족, 내 동료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자연과도 같은 순수한 그 사람만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묻어나올 수 있도록 남에게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남이 잘 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여러분이 잘 되는 길입니다."

10月
정갈한 몸과 마음_**정리정돈(整理整頓)**
"정리(整理)라는 것은 마음을 먹고 따로 시간을 내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몸에 배어있는 습관처럼 본인과 주위를 돌보다 보면 어느덧 몸과 마음이 정돈되어 있는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11月
신뢰_**역지사지(易地思之), 언행일치(言行一致), 수오지심(羞惡之心)**
"자신의 사소한 것부터 바로잡아 나 자신과 주위로부터의 신뢰(信賴)를 쌓아야 합니다."

화승, 이상 無!

Writer 김병호 홍보팀 과장

남들이 이상하다고 해서
다 이상한 것만은 아닙니다.
가지런히 놓인 생각보다
조금은 비뚤어진 생각,
똑같은 생각이 아닌 시작부터 다른 접근,
생각지도 못했던 이상한 발상.
이런 기분 좋은 이상한 일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기존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지금껏 해왔던 것들보다 더,
앞으로 해야 할 일들보다 더,
한계의 마지노선을 가볍게 통과하는
그 이상의 행복한 마라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됩니다.

서랍 속에 잠든 꿈을 깨웁니다.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나에게 묻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나를 토닥이며, 칭찬합니다.
지금보다 더 크게, 더 멀리 봅니다.
백지를 꺼내 인생을 새롭게 설계합니다.
나의 가장 이상적인 이상을 그려봅니다.

이상異常하다.
솔직히 진짜 이상하다.
나의 한계,
그 이상以上을 넘어서다.
10년 후 나를 빛낼
이상적인 이상理想

신발을 만들던 회사가
고무호스로 발상을 전환해
고무소재 자동차부품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포장용 필름을 만들던 회사가
태양광에 눈을 떠
태양 전지 EVA 시트로
더 큰 미래를 열었습니다.
세계를 잇는 글로벌 네트웍스,
첨단 소재로 여는 무한한 가능성,
베트남에 펼쳐진 더 큰 희망-
여기, 25개의 화승이라는 이상이 펼쳐내는
이상한, 그 이상의 오늘입니다.

방치된 당신의 이상은 무엇인가요?
지금, 3개의 이상에 대한
긴급 셀프 점검을 권해 드립니다.

CONTENTS

2014 Winter Vol. 37

Open day

04 현승훈의 화담(和談)

08 Open Your Life ‖ 화승, 이상 無!

–

異常 참 이상하다

12 Column ‖ 이상한 사람만이 이상에 도달한다

14 Interview 1 ‖ 소년상회 채낙영 셰프

18 Interview 2 ‖ 일러스트 마니아 화승R&A 이예리 사우

22 Story Zip 1 ‖ 이상하게 끌리는 매력의 소유자들

26 Photo Essay ‖ 고단한 직장인의 이상한 하루

32 Photo Space ‖ 이상한 공간, 자동차운전면허학원

–

以上 그 이상이다

38 Story Zip 2 ‖ 별걸 다 모으는 사람들

44 Interview 3 ‖ 다둥이 아빠 화승소재 이해성 사우

48 글로벌 화승 사람 ‖ 신발, 고무를 만나다

52 화승, 그 이상의 화승 ‖ ❶ 다시 만난 베트남 ❷ One Day, 화승비나

❸ 화승롱탄과 화승비나네트웍스 ❹ 화승비나, 우리 동네를 소개합니다

❺ 화승비나 사내 복지 ❻ 화승비나 이계영 대표이사

Do Better Tomorrow

www.hwaseunggroup.com

–

理想 이상적이다

70 화승 패션왕 ‖ 옷 잘 입는 꽃할배와 두 남자의 간지 Up 프로젝트

76 진심 맛집 ‖ 알려주고 싶지 않은 진짜 맛집

80 화승 이 만남 ‖ 회장님의 선물, 가장 못난 엄마의 가장 행복한 이야기

86 베트남을 껴안는 법 ‖ 화승비나 글로벌 사회공헌

90 With Project ‖ ❶ 백혈병 · 소아암 걷기대회 ❷ 화승 꿈틀 프로젝트 엔딩파티

98 화승이랑 놀자 ‖ 화승이랑 그 두 번째 이야기

–

Hawseung Reports

100 화승에 이런 일이

104 그룹 뉴스

106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

異常

인류의 진화는 호기심으로부터
합리적인 의심과 남다른 생각으로
세상의 비밀을 풀다

참, 이상하다

異常한 사람만이 理想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천재 화가 피카소,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갈릴레이의 공통점은 살아생전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다는 것이다. 훗날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해 세상에 이름을 남겼다. 남들과 다르면 어떠랴. 원하는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상해지는 것도 중요하다.

여름휴가 때 아내와 함께 경북의 깊은 산골을 찾아 열흘 동안 야생에 가까운 캠핑을 즐겼다. 떠나기 전 제일 먼저 한 일은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는 것이었다. 구청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벗어던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름의 일탈 선언이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먹고, 자고, 산책하고, 책을 읽었다. 몸 안 가득 좋은 기운이 한가득 충전된 느낌이었다. SNS에 그 사진을 올리자 많은 사람이 멋지다는 댓글과 잘 쉬다 오라는 격려를 보내주었다.

그리고 모두 '야생의 휴가'를 부러워했다. 일상으로 돌아온 뒤에도 염색한 머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기로 했다. 단순한 일탈이 아닌, 새로운 시도 중임을 주변에 보여주고 싶었다. 거리에서 만나는 주민, 특히 여성들이 멋있다는 반응을 보여 기분이 매우 좋았다.

요즘 들어 '월화수목금금금'이라는 말이 자주 오르내린다. 월요일부터 주말까지 일만 하는 안타까운 직장인의 현실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일상은 흡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죽을 때까지 같은 길에서 바위를 굴려야 하는 시지프스의 형벌 같아 안타깝다. 오죽했으면 어느 정치인이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저녁이 있는 삶'을 내걸었을까. 이처럼 우리의 일상은 참으로 갑갑하기 그지없다. 그냥 조금 이상하더라도 자신의 색깔을 찾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간다면 인생은 고해가 아닌 즐거운 놀이 공간이 되지 않을까.

남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 어쩌면 군중의 시대라고 불리는 현대 사회에서 조금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다. 요즘 JTBC에서 하는 〈히든 싱어〉라는 TV 프로그램을 자주 본다. 한 가수의 히트곡을 모창 가수들과 원조 가수가 장막 뒤에 숨어 소절을 나눠 부른 뒤, 원조 가수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모창 가수들의 실력이 어찌나 뛰어난지 전문가들조차 가려내지 못한다. 그러나 정작 방송이 끝나고 시청자들의 기억에 남는 것은 원조 가수뿐이다. 음원 순위에 원조 가수의 지나간 노래들이 상위에 랭크되는 것이 그 증거다. 반면 스타를 흉내 내는 모창 가수는 아무리 가창력이 뛰어나더라도 원조 가수만큼 유명한 스타가 되기는 힘들다. 남들이 나를 따라 하는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나만의 색깔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뜻이다.

남과 구별되는 나만의 색깔을 만드는 것을 창의성이라고 부른다.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세상을 사로잡는 시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남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지루해하거나 말로만 창의성을 강조한다. '창의=세상에 없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물주가 세상을 만든 이후 하늘 아래 순수한 창조는 없다. 기존에 나온 것을 모방, 재해석,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편집한 것이 발명품이고 신제품이다. '좀 다르게 사는 삶'을 찾는 과정에서 오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성공만을 바라보며 조급해하지 말자. 처음부터 높이 뜨는 비행기는 없다. 닦고 조이고 기름 치고 활주로를 길게 달린 후에 서서히 떠오르는 것이다. 처음부터 수직으로 떠오른 헬기는 멀리 가지 못하지만, 기나긴 준비 후에 날아오른 비행기는 몇 시간 동안 하늘길을 달린다.

비바람을 견디며 조금씩 나이테를 채워가는 나무처럼 지금 좀 힘들지라도 차근차근 자신의 길을 걸어가자.

입체파 화가 피카소는 "나는 본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상상한 것을 그린다"고 했다. 눈에 보이는 사물 그대로를 그리던 기본 기법을 뒤집은 것이다. 그는 같은 사물도 이면을 파헤쳐 그리는 자신만의 기법을 고안해 냈으며, 매번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작품을 선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20세기 최고의 거장이 되었다.

누구나 자신만의 소중한 색깔을 가지고 다르게 살 수 있다. 다르게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주인공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또, 이런 개인의 생각과 실천이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된다. 남과 다른 당당한 내 모습을 사랑하라. 남과 다른 인생의 즐거움을 누려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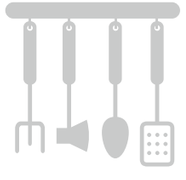
Profile
휴가 때면 머리를 샛노랗게 염색하고, 구청 행사 때는 소크라테스 분장을 한다. 손톱에 봉숭아 물을 들인 채 뉴스에 나와 인터뷰를 하는 유종필은 서울시 관악구청장이다. 천편일률적인 삶을 사는 이 시대의 청춘들에게 색다르게 살면 재미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 중이다. 그의 저서로는 〈세계도서관기행〉, 〈잘난 체 하시네!〉,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등이 있다.

Writer 이진우 + Photo 류병문

독특한, 그래서 더 매력적인

소년상회 채낙영 셰프

어릴 적, 친구들을 집에
불러 모아 라면도
끓여주고 스파게티도
만들어주던 소년이
어느새 어엿한 셰프가
되었다. 자신만의
요리로 손님들의 입맛을
들었다 놨다 하는 요리
밀당남! 소년상회의
채낙영 셰프다.



아침형 인간의 맛있는 심야식당

동글동글한 외모에 서글서글한 눈매, 빵빵 터지는 웃음소리와 자유로운 말투까지. 처음 얼굴을 맞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원시원한 채낙영 셰프의 매력에 빠져버렸다. 오죽하면 그가 출연했던 TV 프로그램 〈올리브쇼 2014〉에서도 그를 '엉뚱발랄 재주꾼'이라 소개했을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요리사가 꿈이었다는 채 셰프. 직접 만든 음식을 친구들이 맛있어했느냐는 질문에 "먹고 배탈 났다는 애들이 많았어요!"라며 또다시 호탕한 웃음을 터뜨린다.

채낙영 셰프는 그동안 〈셰프의 야식〉, 〈올리브쇼 2014〉 등 여러 TV 프로그램에서 자신만의 야심 찬 음식을 선보였다. 이 메뉴와 레시피들은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오르내리며 유명세를 탔는데, 특히 우유와 약간의 채소를 넣어 만든 일명 '채낙영 라면'은 수많은 음식 블로그를 점령했을 정도이니 말 다했다. 그가 소개한 음식들은 평범한 듯하면서도 독특한 조합으로 시청자들의 요리 욕망을, 그리고 입맛을 자극한다. 그러니 채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소년상회'에도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서울 건대입구역 근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빨갛게 꾸며진 소년상회의 불은 새벽 두 시까지 꺼지지 않는다. 늦은 밤 출출한 손님들의 맛있는 아지트인 이곳은 한때 불었던 심야식당 열풍의 선두에 서 있었는데, 그 시작은 채 셰프가 소년상회 개업 전에 운영했던 '파스타 파는 포장마차'였다고. 당시 밤늦은 시간에 우동이 아닌 파스타를 먹을 수 있는 트럭 포장마차가 있다는 소문은 금세 퍼졌다. SNS는 물론 언론에서도 스포트라이트를 들이댔을 만큼 많은 사람이 이 독특한 아이디어에 엄지를 치켜들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그는 덤덤했다.

"파스타 파는 포장마차에 무슨 전략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 시작한 거지. 9시가 넘어야 단속이 없으니까 밤늦게 영업했는데, 당시에 심야식당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하면서 포장마차가 뜨더라고요. 단지 밤늦게 파스타 파는 데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와서 드세요~하는 생각이었는데."

소년상회를 연 이후에도 채 셰프는 심야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아무래도 늦은 시간에 진득하니 앉아 술 한잔 하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매일 찾아오는 단골손님이 생기고, 그래서 더 재미있고 사람 사는 맛이 느껴진다는 이유다.

"사실 전 아침형 인간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좋아해요. 근데 뭐, 밤에 손님들과 더 친해질 수 있어서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지 뭐~"

메뉴판부터 인테리어까지 재미 빼면 시체!

소년상회는 채낙영 셰프의 대학 시절 계 모임 이름이다. 그 모임은 비록 한 달 만에 끝났지만 "항상 소년처럼 살자!"며 가게에 이름을 갖다 붙였다. 소년상회에 들어서면 벽지 대신 붙어있는 만화책이, 벽돌 사이사이에 껴있는 레고 조각이, 우유갑으로 만든 조명이 반짝반짝 눈길을 끈다.

"양식 레스토랑 이름은 거의 다 영어나 불어고 인테리어도 하나같이 비슷하게 고급스럽죠. 재미없잖아요! 이 인테리어도 다 제가 제안한 거예요. 아, 물론 아이디어만 낸 거지. 시공을 내가 어떻게 해~"

특별한 날을 손에 꼽아 먹는 비싼 양식보다 좀 더 다양한 양식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던 채 셰프는 이곳에서 그 꿈을 이뤄가고 있다. 리에뜨, 비프 타르타르, 핀쵸스 등 소년상회에서 내놓는 음식은 어쩐지 생소

하지만 손님들의 입맛을 꽉 사로잡는다. 소주와 버니니를 섞은 '소니니'도 어색함 없이 곁들일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이라고. 소년상회에서는 몇 가지 파스타를 제외한 메인 메뉴들을 40일 주기로 한 번씩 바꾸는데, 뻔하지 않은 요리로 매번 손님들에게 새로운 맛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우리 가게 메뉴가 특이한 건 아니에요. 손님들이 그동안 한정적인 양식만 접했기 때문이죠. 스파게티, 피자, 스테이크 이런 것만 먹고 서양요리 먹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유럽만 해도 음식의 범위가 얼마나 방대한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숨은 양식을 요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하"

꼬깃꼬깃 손님들의 손때가 묻은 종이 메뉴판에는 처음 보는 음식 이름이 가득하다. 게다가 이런 작명 센스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김춘례 할머니의 돼지고기 리에뜨', '강민이 집에서 끓여 먹던 새우 까수엘라' 등 글자만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메뉴들이 익살스럽게 손님의 구미를 당긴다.

"처음에는 재미있겠다는 생각에 메뉴 이름 짓기를 시작했는데 이쯤 되니 은근 고민거리예요. 이래 봬도 다 근거가 있는 이름들이거든요. 리에뜨는 프랑스의 옛날 시골 요리인데, 우리 시골에 가면 김춘례 할머니 한 분씩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돼지고기로 만든 리에뜨니까, 김춘례 할머니의 돼지고기 리에뜨!"

인테리어에서부터 음식 구성, 메뉴 이름까지 뭐 하나 재미가 빠진 게 없다. 뭐든 재미있을 것 같으면 일단 하고 본다는 게 그의 지론이란다. 손님들이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더욱 신이 난다며 허허 웃는 모양새가 마냥 사람 좋아 보인다. 하지만 그날그날 신선한 재료를 준비하고, 조리 과정 하나 허투루 하지 않을 만큼 요리에 대한 채 셰프의 잣대는 누구보다 엄격하다.

"음식을 만들었는데 손님 앞에 내놓기 전에 자신감이 없으면 그건 실패한 요리예요. 내 입에 이상한데 어떻게 손님이 맛있게 먹겠어요?"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요리를 나눌 수 있어 행복한 채낙영 셰프. 그의 꿈은 더 많은 소년상회에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는 것이다. 언젠가 대전의 소년상회에서는 페루의 음식을, 경주의 소년상회에서는 이집트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그의 오랜 또 하나의 꿈, '〈무한도전〉에 비중 있게 두 번 출연하기'도 조만간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요리를 나눌 수
있어 행복해요.

채낙영 셰프가 화승 사보 독자들을 위해 만든
'名家 이순복 할아버지의 비프 타르타르'
부드러운 육회와 말린 귤의 조합이 매력적이다.

화승R&A 복합소재사업팀 이예리 사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예리스!

몸뚱이만 한 머리를 가진 이등신 캐릭터들과 꽃들이 하얀 세상을 휘젓고 있었다.
이예리 사우의 스케치북 속은 그야말로 '이상한 나라'였다. 정교한 펜 터치, 스펙터클한
동작 표현! 이런 건 결코 찾아볼 수 없다. 어쩌면 처음 본 사람들은 '나도 그릴 수 있겠다'
싶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가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시작하면 당신은 이미
스케치북 속 세상에 빠져든다, 빠져든다, 빠져든다…

일러스트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상큼 발랄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화승R&A 복합소재사업팀 이예리 사우. 이제 입사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까진 선배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막내 사원이다. 겨우 회사에 적응한 것
같다며 청량한 웃음을 터뜨리는 그녀. 있는 힘껏 활짝 웃는 얼굴이 본인이 그린 일러스트
캐릭터들과도 참 많이 닮았다.

"이건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다녀와서 그렸어요. 신들린 듯 연주하는 모습을 표현해보고 싶었고요.
저건 친한 언니들이랑 신나게 놀고 와서, 그때의 흥을 되살려 그린 그림이에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커플 댄스의 모습이고 음…"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스케치북 속에서만큼은 아이처럼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그녀. 평범한 일상도,
사람도 그녀만의 상상 필터링을 거쳐 스케치북에 옮겨지면 예사롭지 않은 일러스트가 된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토록 통통 튀는 일러스트를, 혹자로부터 "천재 아니냐!"라는 말을 이끌어냈을
정도로 단번에 쓱쓱 그린다는 것. 음악만 들으면 머릿속엔 그릴 일러스트가 떠오르고 손은 절로
움직이는 신통방통한 재주를 지닌 이예리 사우. 그녀에겐 일러스트가 곧 생활의 일부이자, 활력소다.

"유난히 바빴던 작년엔 더 그림에 의지했던 것 같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말 오전엔 꼭 음악을
들으며 일러스트를 그렸어요. 그리는 동안엔 온갖 잡념이 사라지는 것 같았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취미인 것 같아요."

이예리 사우
작품

주체할 수 없는 일러스트 본능으로 행복 전파

그저 좋아서 그린다는 이예리 사우는 단 한 번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인지 일러스트 한 점, 한 점에서 그녀만의 개성이 담뿍 묻어난다. 12색 유성 매직 세트로 시작한 초보의 늪을 지나, 한참 그림 그리는 재미에 물이 올랐을 땐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단 욕심도 생겼었단다. 그래서 학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결국 다시 원점.

"저는 좀 더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그리고 싶은데, 학원에선 8등신만 그리더라고요! 제 스타일과 안 맞는 것 같아서 두 달 다니고 그만뒀습니다. 매일 가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스트레스까지 받았어요. 그럴 바엔 속 편하게 혼자라도 내가 그리고 싶은 걸 그려야겠다고 생각했죠."

때로는 크고 작은 실수도 하지만 그리면 그릴수록 조금씩 실력이 쌓이는 재미가 꽤 쏠쏠하단다. 게다가 무엇보다 그녀의 일러스트를 향한 불타는 사랑 덕분에 가까운 사람들은 참 행복하기만 하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예리표 그림을 선물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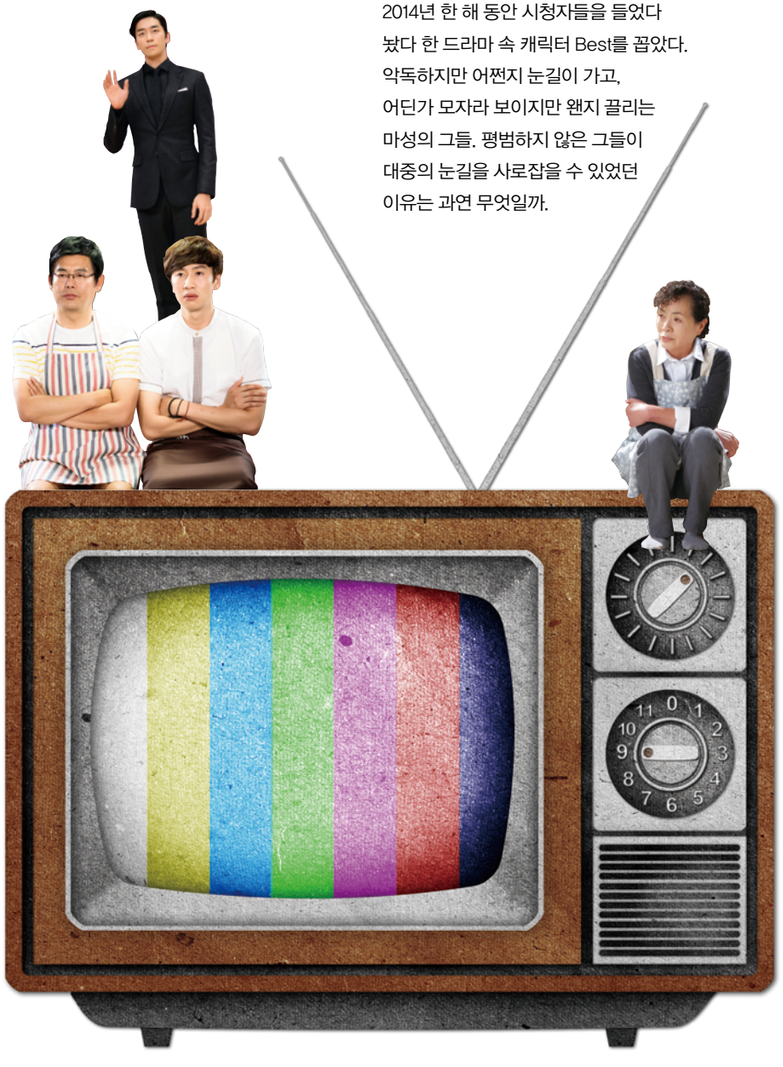
"얼마 전 엄마에게 아무 무늬 없는 가죽 휴대폰 케이스에 일러스트를 그려서 드렸고, 회사 언니 생일 땐 일러스트를 새겨 넣은 머그컵을 선물했어요. 다들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보람차더라고요. 아, 아직 남자친구한텐 못 줬네요. 호호!"

생기 넘치는 일러스트로 주변인들에게까지 행복을 전하는 그녀. 아직 구체적이진 않지만 다음 스텝은 지금의 취미생활을 좀 더 생산적인 일로 발전시키는 것이란다. 더불어 즐거운 마음으로 그린 일러스트를 통해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불어넣고 싶다는 이예리 사우의 행복한 꿈이 꼭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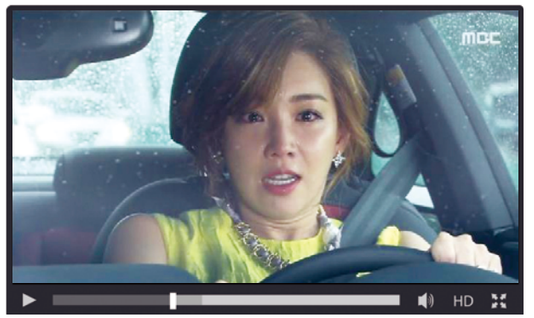
평범한 일상도 저만의 상상 필터링을
거쳐 스케치북에 옮겨지면
특별한 그림이 되지요!

2014 Best Award

이상하게 끌리는 매력의 소유자들



2014년 한 해 동안 시청자들을 들었다 놨다 한 드라마 속 캐릭터 Best를 꼽았다. 악독하지만 어쩐지 눈길이 가고, 어딘가 모자라 보이지만 왠지 끌리는 마성의 그들. 평범하지 않은 그들이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1

〈왔다! 장보리〉

연민정

〈아내의 유혹〉에서 신애리와 민소희라는 양대 악녀를 탄생시켰던 김순옥 작가는 〈왔다! 장보리〉의 연민정으로 새로운 악녀의 대명사를 만들어냈다. 가진 것 없는 남자친구를 버리고, 가난한 엄마를 부인한 데 이어 모함하고, 마침내 살인 미수까지 저지르는 끝없는 악행은 현실에서라면 징역 13년 형을 선고받을 정도라니 그야말로 역대급 악녀인 것이다. 연민정 역을 연기한 이유리가 "연민정은 51회 동안 한 번도 진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할 만큼 항상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뻔뻔하게 거짓말을 내뱉었다. 게다가 오히려 순진한 피해자인 양 전세를 뒤엎는 모습은 시청자들이 욕하면서도 보게 만드는 놀라운 흡인력을 발휘했다. 막장 드라마는 싸움 구경처럼 충격적인 사태를 지켜보는 장르라 할 때, 연민정은 보는 이들에게 '도대체 어디까지 하려고 저러느냐'는 궁금증을 계속해서 던져준 인물이기 때문이다. 곱게 세팅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을 한 채 "비술채 엄마 후~ 비단이 후~"처럼 소름 끼치는 명장면을 남긴 이유리는 비록 촬영 도중 행인으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식당에서도 냉대당했다고 하나 주인공 장보리(오연서)를 뛰어넘는 존재감을 보였으니 그만한 보람은 있지 않을까.

나 화나게 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짓을 할 지 나도 겁나니까요.

2

〈밀회〉

강준형

못난 놈. 겉보기엔 우아하게 사는 음대 교수지만, 유아적이고 이기적인 그의 본 모습을 아는 사람들에겐 '허당'이자 '중2병'이라 불리는 찌질한 남자다. 나름 명문가에서 태어났지만 집안의 몰락과 함께 끈 떨어진 연 신세가 되었고 실력도, 정치력도 뛰어나지 않아 항상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남의 눈치를 보는 이 남자의 삶은 초라하고 안쓰럽다. 그런데 강준형이 흥미로운 건 그 와중에도 고고함을 잃지 않으려, 대놓고 구걸하지 않으려 괜한 허세를 부린다는 점 때문이다. 자신보다 능력 있는 동료를 질투하고, 조교와 학생들을 수족처럼 부려 먹으며,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은근슬쩍 정당화하는 속물성이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매력이다. 아내와 제자 사이 심상치 않은 공기를 일찌감치 눈치채고서도 자신의 출세를 위해 모른 척 돌아서는 이 소심한 야심가는 〈겨울왕국〉의 사랑스러운 눈사람 올라프를 닮은 이목구비로 '올라프 강'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약자 앞에선 계급의식을 드러내며 한껏 잘난 체하던 뻔한 남자. 그럼에도 강준형은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한 매력적인 캐릭터였다.

인생 꼬이는 애들은 어차피 안 돼.

3

〈세 번 결혼하는 여자〉

임실댁

재벌가나 부잣집이 등장하는 드라마에서 '아줌마',
즉 가사 도우미는 대개 직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역할로서 존재감이 미미하지만 〈세 번 결혼하는
여자〉의 임실댁은 최고의 신 스틸러였다. 임실댁은
입이 걸고 까다로운 고용주 최 여사(김용림) 앞에서도
구시렁대는 척 '상감도 먹는 게 뒷구멍 욕'이라며
입바른 소리를 슬쩍 던질 만큼 줏대가 있고,
집안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도
매우 강하다. 매사 뚱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서도
그는 엄마와 떨어져 새엄마와 살며 마음고생 하는
최 여사의 손녀 슬기(김지영)에게 "오구오구 우리
애기, 믄 일이 있냐"라며 든든한 보호자로 애정을
듬뿍 표시하고, 슬기를 구박하다 들킨 채린이
돈다발을 내밀며 모른
척해달라고 애원할 때
"나 그렇게 안 살았소잉.
사람 시시하게 보지
마씨요!"라며 서슬 퍼런
기세를 보이며
그냥 '아줌마'가 아님을 증명했다. 이만하면 전국
드라마 속 아줌마 협회 회장감의 면모를 충분히
보인 듯하다.

밥이 체한 게 아니라
욕심이 체했지잉.
욕심이 욕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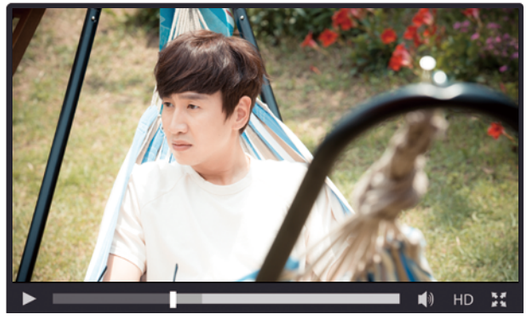
4

〈별에서 온 그대〉

이재경

프로필에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적혀 있는
명백히 나쁜 놈이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재벌
2세지만 자신의 앞날에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형을
살해하고 전처를 납치해 정신병원에 감금했으며,
자신과의 관계를 공식화하고 싶어 하는 연인을
자살로 꾸며 살해했다.
그런데 이 잔혹한 연쇄
살인마에게 예상치
못했던 귀여운 별명이
붙으며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이재경을
연기한 배우 신성록의 뚜렷한 이목구비와 독특한
헤어스타일이 '카톡개', 즉 SNS 이모티콘의 강아지
캐릭터와 닮았다는 것이었다. 〈추격자〉의 연쇄
살인마 역인 하정우의 연기를 참고했다는 신성록은
싸늘한 표정과 감정의 동요 없이 저지르는 악행으로
시청자들을 소름 끼치게 하는 동시에 수많은
'카톡개' 패러디 사진의 주인공이 되었다.
자신의 목숨이 아슬아슬한 상황에서도 "날 죽여도 날
멈추지 못해!"라며 큰소리치는 배짱과 뻔뻔함은
실로 강력한 악인의 모습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끝난 뒤에 남은 것은 이재경이라는 캐릭터의
이름보다도 '카톡개'다. 심지어 아직도 신성록이
새로운 작품에 출연할 때마다 "카톡개는
잊어주세요"라는 문구가 뜨는 걸 보면, 카톡개는
잊기엔 너무한 그의 운명인가보다.

네 죽음은 그 어떤
죽음보다 자연스러운
자살로 위장될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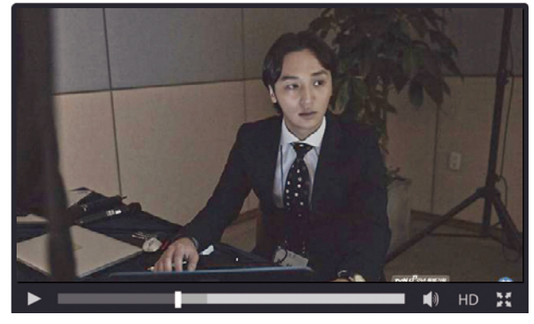
5

〈괜찮아, 사랑이야〉

박수광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고 괴성이나 욕설 등을 내뱉으며 몸을 떠는
투렛 증후군을 앓고 있다. 자신의 병을 알고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부모에 대해서조차 '내가 싫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냥 속상한 거'라며 이해하는
그는 시크한 매력을 풍기고 싶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순하고 따뜻한 성품을 지녔다. 품행장애가 있는
여고생 오소녀(이성경)를 짝사랑하면서도 꽤 오래
망설이던 남자. 하지만 그녀가 폐지를 수거하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험한 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화내며 돌아설 만큼 강단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물론 오소녀가 다른 남자와 클럽에 가려고 할 때
교복 대신 입으라며 새 옷을 선물해 호구 취급을
받기도 하지만 마침내 사랑을 쟁취하는 그를 보면
알 수 있다. 장재열(조인성)처럼 미남에 부자가
아니어도, 조동민(성동일)처럼 냉철한 지성의
소유자가 아니어도 세상에 괜찮은 남자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특히 투렛 증후군이
희화화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공부했다는
이광수의 연기와 키는 크지만 공격성이 느껴지지
않는 그의 분위기는 속 깊은 박수광의 캐릭터와
완벽히 맞아떨어지며 여운을 남겼다.

나는 행복하니까.
아빠도 행복하시라고요.



6

〈미생〉

한석율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을 모두 합쳐 섞은 것
같다. 가운데 가르마를 타서 빗어 내린 독특한
헤어스타일에, 몹시 수다스러우며 손짓 발짓이 많고,
말하는 내용의
상당수는 자신의
공모전 입상 경력과
자신은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에
경험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식의 자기 자랑이다. 한석율은
언제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잘못은 감추고 귀찮은
일은 미룬다. 게다가 상대를 혹하게 하는 말재주가
있어 다단계 영업을 해도 성공할 인물이다.
매일 아침 여직원들의 출근 모습을 훔쳐보다
'개벽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도 모자라 지나가는
여성들의 사진을 찍고, 심지어 엉덩이를 만지다
따귀를 맞기도 한다. 그럼에도 "기왕 맞았으니까
한 번만 더 만질게요"라고 애원하는 걸 보면 그냥
미친 건가 싶기도 하지만, 이 또한 자신의 담당
업무인 섬유를 열심히 연구하다 벌인 일들이니 마냥
미워보이진 않는다. 회사 내 가십부터 업계 동향까지
모르는 것 하나 없고, 공장 노동자들과도 친분이
돈독한 한석율. 남의 팀에 와서 자기 일처럼 참견도
곧잘 하는 친화력 혹은 오지랖은 가끔 얄밉지만 보다
보면 피식 웃게 만드는 그만의 매력이다.

선택의 순간들을 모아두면
그게 삶이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상상 그이상!

고단한 직장인의 이상한 하루

아무리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지만 이상하게 꼬이기만
하는 날이 한 번씩 있다. 머리도 안 감고 꼬질꼬질하게 나간 날 하필
차려입은 전 애인과 딱 마주친다거나, 돈이 없는데 갑자기 약속이
막 잡힌다거나. 매일 비슷한 일과를 보내는 직장인에게도 예외는 없다.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엉킨 실타래처럼 답답해져만 가는 날이 있기 마련.
화승네트웍스 심영섭 사원의 이상한 하루를 따라가 보았다.

으아, 찌뿌둥하다. 계속되는 야근에 몸이 천근만근이네.
눈 뜨자마자 오늘 있을 중요한 PT가 떠올랐다.
준비 잘했으니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거야. 자신 있어!
오늘도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해야지.
근데 왠지 찝찝한 이 기분은 뭐지.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시계를 잘못봤나?

부랴부랴 세수만 하고 뛰어
나오긴 했는데
시간 안에 갈 수 있을까?
요 며칠은 알람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더니.
오늘은 알람 소리도 못
들었네. 왜 하필 오늘일까.
왜. 어딘가 불편해
달리다말고 보니
구두까지 짝짝이다.
색이 같아서 몰랐어.
어떡하지?
오늘 뭔가 이상해.
기어코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아, 택시는 또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일주일에 하루,
아침 회의 있는 날인데. 빨리 가서 나머지 PT 자료 정리도 해야 하는데.
평소엔 택시가 줄을 지어 서 있더니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아 떨려!! 제발 택시님. 빨리 좀 와주세요.

"이게 최선이야? 다시 해와!"
결국 PT도 시원하게 말아먹었다.
일주일 꼬박 새우잠 자며 준비한 내 발표.
어제까진 괜찮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왜...
아침에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길래 걱정이 되긴 했다.
TV로만 보던 '서류 맞기'를 당하게 되다니... 입사 이래 처음일세.

"영섭 씨, 보고서 언제 돼?" 수정한 보고서를 내려던 찰나,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더 이상 헛웃음도 나오지 않는다.
내 인생 오늘 날짜에 뭐가 낀 게 분명하다. 울고 싶다 정말.

"동기야~ 오늘 한잔?"
꼬여도 꼬여도 이 정도일
수 있을까. 이상하리만치
되는 일 없었던 오늘.
소주 한잔에 다
털어버리지 뭐!
짝짝이로 신은 내 구두를
보며 깔깔대는 이 친구를
보고 있자니 슬프긴 한데
웃음이 난다.
"야, 너 오늘 힘든
날이었으니까
이건 내가 쏜다!"
고맙다 고마워.

무거운 몸을 이끌고 털레털레
집으로 돌아오니 대문 앞에서 날
기다리는 건 엄마의 택배.
먹을 거 떨어진 건 어떻게 알고
쌀이며 각종 반찬에 고구마까지
바리바리 싸서 보내셨네.
깜짝 선물 받은 기분인걸.
엄마 택배는 언제나 감동이다.
이제야 고단했던 하루의 피로가
좀 풀리는 것 같아.
그래, 생각해보면 언제나 좋은
일만 있을 순 없는 건데.
이렇게 꼬이는 날도 있고, 술술
풀리는 날도 있고 그런 거지 뭐.
난 아직 젊으니까! 이 정도
고단함에 쓰러지지 않아.
심영섭, 내일부터 다시 또 파이팅!

Editor 한수빈 Writer 심일욱 그룹홍보팀 사원 + Photo 류병문

자유를 향해, 합격을 향해 밟아라

#1. 당신만은 '김여사'가 되지 않길

Cooperation 한미자동차운전전문학원

동그란 운전대를 잡고 액셀을 지그시 밟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자동차. 이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통과의례가 있으니, 바로 운전면허시험이다. 직업, 나이, 성별을 막론하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합격'이라는 단 하나의 꿈을 향해 모인 묘한 공간.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의 하루를 담아보았다.

※ 〈DBT〉 사보 독자인 강현정님이 추천해주신 공간입니다.

최근 인터넷에는 '김여사'의 운전 실력에 대한 글들이 왕왕 올라온다. 김여사란 운전이 미숙한 여성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단어다. 요즘에는 도로에서 쩔쩔매거나 황당한 사고를 내는 김여사뿐만 아니라 상식 이하의 운전을 펼치는 '살인면허'가 난무한다. 한 차가 두 개의 차선을 밟은 채 '샌드위치 운전'을 하는 것은 예사요, 1차선에서 3차선까지 직각으로 횡단해 차선을 변경하는 곡예운전 동영상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이렇듯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무개념 운전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운전면허시험의 간소화에서 찾을 수 있다. 약 700여 m의 다양한 코스를 통과해야 했던 장내기능시험이 간소화 이후 50여 m의 구간만 운행하면 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비록 합격률은 높아졌지만 사고율도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지금, 다시 기능시험의 수준을 강화해야만 하는 것일까.

#2.
운전면허, 무엇을 따야 하나 그것이 문제로다

운전면허의 종류는 다양하다. 1종 보통, 2종 보통을 비롯해 대형버스와 대형화물차를 운행할 수 있는 1종 대형, 이륜차를 위한 원동기 및 2종 소형, 특수면허로 분류되는 트레일러 및 렉카까지. 최근에는 캠핑족들이 늘면서 캠핑카를 운전할 수 있는 트레일러 면허가 인기다. 750kg(공차 중량) 이하의 트레일러는 2종 보통면허로도 견인 가능하지만, 집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대형 캠핑카를 장착해 다니고 싶다면 반드시 특수 트레일러 면허가 있어야 한다.

이 중 가장 어렵기로 소문난 2종 소형은 할리데이비슨 등 125cc 이상 대형 오토바이를 탈 때 필요한 면허로 응시자 중 90% 이상이 첫 번째 코스에서 탈락한다. 그래서 일명 '지옥의 시험'이라고도 불리며, 타이어가 2회 이상 선을 밟거나 발이 조금만 땅에 닿아도 바로 실격처리가 된다. 시험이 이토록 까다로운 이유는 다른 차종에 비해 사고 위험률이 더 높기 때문. 모든 시험이 그렇지만 악명 높은 2종 소형 면허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연습, 또 연습만이 살길이다.

#3.
빛나는 내일을 향한 오늘의 도전

일반인들이 취득하는 1 · 2종 면허만으로도 이동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함은 없다. 다만 좀 더 스펙터클한 드라이빙을 즐기고 싶다면 다른 종류의 면허도 따놓을 것을 추천한다. 운전전문학원에서 만난 교육생 임영희 씨는 현재 트레일러 및 1종 대형, 2종 소형 면허를 연습하고 있다. 그녀는 가까운 미래에 캠핑카, 오토바이 등 색다른 방식으로 여행을 즐기고 싶어 조금이라도 젊을 때 면허를 따고 있다고 했다. 임영희 씨 외에도 면허가 있지만 평소 차를 몰지 않아 운전이 익숙지 않은 장롱 면허 소지자, 아슬아슬 괜찮을까 눈을 뗄 수 없는 고령의 할머니까지 운전면허연습장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각자 가진 사연은 달라도 이들의 바람은 오로지 하나, 시험용 차량 앞좌석에 설치된 등에 합격을 알리는 녹색불이 들어오는 것이다. 오늘도 안전을 몸에 익히며 천천히 핸들을 돌리는 그들의 도전이 빛날 수 있도록 무한한 응원을 보낸다.

운전면허 취득 절차

①교통안전교육 ②신체검사 ③학과접수 ④학과시험
⑤기능접수 ⑥기능시험 ⑦연습면허발급 ⑧도로주행접수
⑨도로주행시험 ⑩본 면허발급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전전문학원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별도의 운전연습이 불가하며, 면허시험 시행 및 운전면허 관리업무만 진행한다. 운전전문학원은 기능, 도로주행 운전교육을 실시하며 자체시험장 운영을 통해 합격자를 배출한다. 운전전문학원에서 면허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의무교육시간(학과교육 5시간, 장내기능교육 2시간, 도로주행교육 6시간)이 부여된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以上

무엇을 보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는
단단한 내공을 쌓아가다

그 이상, 이다

수집품,
그 이상의 의미

별걸 다 모으는 사람들

"좋으니까요."
그들이 물건을 수집하는 데
목적 같은 건 없다.
단지 하나의 의미 없던
물건들이 모이고 모여 어느
날의 기억을 저장해줄 뿐.
남들이 뭐라던 수집은
계속된다.
필요 이상으로 모인
이상한 물건 컬렉션.

박지영,
맥주 코스터 컬렉터, 편집기자

본업과는 전혀 무관한 술 리뷰 블로그를 운영 중인 그녀. 맥주마다 로고도, 라벨도 모두 다르다는 특색에 반해 맥주병과 캔을 모으기 시작했으나 곧 공간적인 한계에 부딪혔다. 그렇게 맥주병 대신 모으기 시작한 맥주 코스터가 120여 가지. 이 수집품들은 지금까지 마셨던 맥주에 대한 기억이자 앞으로 마시고 싶은 맥주에 대한 메모이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스코틀랜드 맥주 회사인 '브루독'의 코스터에는 '비관론자'와 '낙관론자'가 앞뒤로 적혀 있다. 그녀는 묻는다. 당신에게 있어서 반이 채워진 맥주는 '반이나' 남은 것인지, '반밖에' 남지 않은 것인지.

박종진,
만년필 컬렉터, 만년필 연구소 소장

만년필을 좋아하는 사람 중 그의 아이디 '파커51'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만년필의 아름다운 펜촉에 반해 만지작거리길 35년, 이제는 거의 모든 브랜드의 만년필을 제 손으로 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그가 운영하는 만년필 연구소에는 주말이면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진 만년필들이 수리를 위해 맡겨진다. 그리고 박종진은 모든 수리를 무상으로 해준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사람들이 가진 추억을 더 단단히 동여매 줄 수 있는 것이 즐거워서다. 단순히 수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관찰하는 그. 박종진의 인생 만년필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수집에 대한 즐거움을 써내려 갈 듯하다.

권호성, 돼지 인형 컬렉터, 연극 연출가

아프리카, 스코틀랜드, 멕시코, 프랑스 등 인형 수만큼이나 출신지도 다양했다. 우연히 선물 받은 돼지 인형을 계기로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더니 오늘에 이르렀고, 지금은 돼지 인형 컬렉터로 소문이나 손재주 있는 지인들이 직접 만들어 선물해주기도 한단다. 꼭 갖고 싶은 인형이 있으면 경매 참여도 불사한다. 덕분에 그의 집에는 돼지 인형뿐만 아니라, 돼지를 형상화한 작품들도 즐비해 있다. 가장 애착이 가는 수집품을 묻자 한참이나 수집장 앞을 서성이던 그는 딱히 애착이 가는 것이 없노라고 답했다.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왠지 알 것 같았다. 연극 연출가인 그에게 모든 공연이 의미가 있듯, 돼지 인형을 만든 작가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현태준, 장난감 컬렉터, 만화가

외환위기 당시 동네 문방구 주인 할아버지로부터 10만 원에 '떨이'로 완구를 인수한 후, 10여 년간 전국의 문 닫는 문방구를 돌아다니며 꾸준히 장난감을 모았다. 그렇게 모은 수집품들로 홍대 근처에 '뽈랄라 수집관'이라는 연구실을 차려 장난감을 좋아하는 모든 이들과 소통하고 있다. '뽈랄라'는 '뽀르노'와 '랄랄라'의 합성어로, '좋아하지만 결코 내색할 수 없는 것들을 즐기자'라는 의미를 담아 직접 만든 말이다. 이는 수집관을 상징하는 타이틀인 동시에 결코 사람들에게 좋은 시선을 받을 수만은 없었던 아픈 역사를 담고 있다. 현태준은 좋아하는 것을 모으는 데 체면 차릴 이유는 없다고 말한다. 그러니 혹시 당신도 무언가를 은밀히 좋아하고 있다면 부끄러워 말자. 좋은 일보다 싫은 일을 더 많이 해야 하는 세상, 좋은 것에 굳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으니까.

김웅. 필름 카메라 컬렉터, 필름숍 The 35mm 대표

어린 시절 꼬깃꼬깃한 용돈을 모아 처음 손에 쥐었던 필름카메라. 그는 그 짜릿한 손맛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수백 대의 카메라를 보유한 필름 카메라 컬렉터가 되었다.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수집하다 보면 이따금 카메라 안에 필름이 그대로 물려있는 경우가 있다. 궁금한 마음에 현상을 해보면 이름 모를 나라의 풍경이나, 외국 꼬마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이제는 새로운 카메라가 생길 때마다 어떤 사연을 담고 있을지 상상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라고. 요즘엔 아마추어 사진가들도 전문가 못지않은 장비로 취미 사진을 찍는다. 김웅은 그렇게 장비 욕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좋은 사진은 좋은 장비가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찍는 사람의 내면이 결정해주는 것이라고.

Editor 이영진 Photo 류병문

화승소재 생산팀 이해성 사우

슈퍼맨을 구출하라!

아들만 넷.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화승소재 생산팀 이해성
사우 가족이 들어서는
순간, 촬영장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돌변해 취재진
모두 입이 떡 벌어졌다.
칭얼대는 쌍둥이는 어르고
달래랴, 과격한 몸싸움을
벌이는 큰 아이 둘 잡으랴
어느새 30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치열한
공방이 잦아들고 마침내
시작된 본격적인 촬영.
과연 이 평화는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아이들 때문에
폭발했다가
또 아이들 때문에
위로 받고
별거 아닌 걸로
웃음 짓는다.

열까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첫째는 제일 큰 형이라 그런지 6살이지만 제법 의젓하게 행동해요.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것 같아서 때론 애틋하기까지 하네요. 둘째는 천방지축 말썽꾸러기지만 나름대로 집중력도 좋고 창의적인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그림으로 잘 표현하더라고요. 쌍둥이들은 또 어찌나 애교가 많은지. 아이들이 저마다 타고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순간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마음은 편해졌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힘든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무래도 사내아이들이다 보니 과격하게 몸으로 부대끼며 놀아줘야 해 아빠는 늘 힘에 부친다. 남자 다섯이 모이면 얼마나 시끄럽고 과격한지 언젠가 한번은 아래층에서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다며 경찰을 부른 적도 있단다. 허나 신고를 받고 온 경찰마저도 그만 사내아이 넷을 보고는 아무말도 못하고 그대로 발길을 돌렸다는 '웃픈' 이야기가 아파트의 전설로 남았다고. 그만큼 큰 아이 둘은 한창 뛰어놀기를 좋아할 때라 무조건 틈나는 대로 실컷 놀아줘야 한다. 낮에 충분히 에너지를 소모해야 밤에 잠재우기도 한결 수월하다는 것. 또 넷을 키우다 보니 뭐든지 스피드가 우선이다. 밥 먹는 것도, 신발을 신는 것도 한 치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고 군대처럼 움직여야 끝이 난다. 이것이 바로 다둥이 아빠의 육아 내공이랄까.

내 인생의 스승, 아이들

정신이 없을 때는 전쟁통이 따로 없지만 이해성 사우도, 와이프도 모두 긍정적인 성격이라 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는다. 오히려 하나를 키울 때보다 둘, 둘보다 셋, 셋보다 넷을 키워보니 육아 스트레스가 덜하다. 첫째를 가질 때만 해도 완벽한 부모가 되기 위해 안달복달했는데 점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다. 그의 양육 스타일은 거의 '방목'이다.

"첫째를 키울 때만 해도 조바심내며 걱정하는 날이 많았는데, 넷을 키우다 보니 오히려 마음을 비우게 되었어요. 형이 잘 먹으면 동생들도 따라서 열심히 먹고, 옷도 따라서 입으려 하고, 떼도 덜 부려요. 이런 점은 확실히 형이 있는 게 큰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아빠에게서 부족한 부분은 또 형제로부터 채워지더라고요. 이게 다둥이 육아의 가장 큰 장점 아닐까요?"

그는 아이들 때문에 폭발했다가 또 아이들한테 위로받고 별거 아닌 걸로 웃음 짓는다. 아이의 작은 손짓 하나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 부모라 했던가. 결혼을 하고, 네 아이의 아빠가 되면서 진짜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이 생겼다는 이해성 사우. 네 아이를 통해 얻는 행복감에 일이 힘든 것도, 삶이 힘든 것도 금세 잊어버린다.

"일에서 돌아오면 아빠 왔다고 네 아이들이 저를 반기는데 그 순간의 뿌듯함은 말도 못해요. 특히 우리 큰 아들은 퇴근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전화가 올 정도로 완전 아빠 바라기라니까요. 앞으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제 일에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늘 삶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지만 정답은 없네요. 한눈팔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아이들도 알아주겠지요. 아직 완벽한 슈퍼맨 아빠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지금처럼 건강한 미소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복닥복닥 못말리는 다둥이 가족

하나도 힘들다는 아들을 셋도 아닌 넷(!)이나 키우는 슈퍼맨이 있다. 6살 첫째 승민, 5살 정민, 2살 쌍둥이 찬민, 철민이까지 네 명의 아빠 이해성 사우가 그 주인공. 2008년, 3살 차이 연상연하 커플로 만나 알콩달콩 연애를 즐기던 그 해에 부부는 아이를 가지게 됐다. 처음엔 걱정도 많았지만 두 사람은 잘 극복했고, 6년이 지난 지금은 뜻하지 않게 네 아이의 부모가 됐다.

"둘째도 계획적이진 않았어요. 하여간 계획이란 게 통하지 않는 부부라니까요(웃음). 그러다 또 얼떨결에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이미 아들만 둘이라 얼마나 딸을 기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들 쌍둥이란 말을 듣고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신이시여,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그렇게 우여곡절 다둥이 아빠 대열에 들어선 이해성 사우. 그는 쌍둥이 찬민, 철민이를 식구로 맞이한 지 이제 막 2년 차에 접어들었다. 처음엔 한 핏줄인데다 모두 성별이 같으니 비슷한 점이 많아서 육아도 한결 편하겠다 싶었다. 그런데 웬걸? '같은 배에서 난 자식이 왜 이리 다를까'라는 말을 매일 실감했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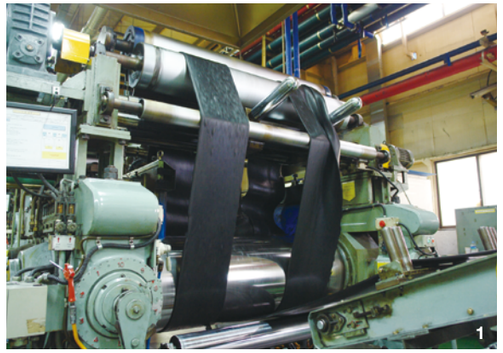
"성격부터 먹는 것, 잠버릇에 이르기까지 하나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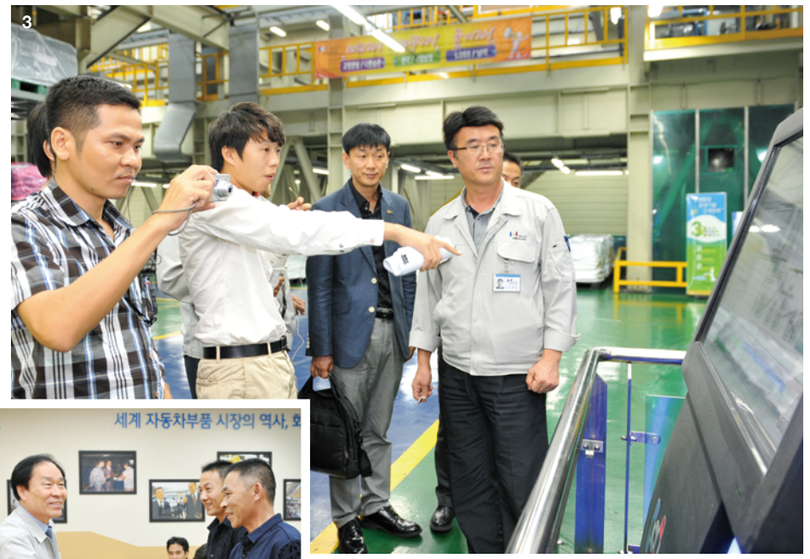
신발, 고무를 만나다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화승비나, 장천제화대련유한공사, 화승인더스트리,
그리고 그룹 홍보팀의 Monthly Plan이 시작되었다. 2년 전보다 스케일이 커져 화승비나,
장천제화대련유한공사 모범사원으로 확대된 3박 4일간의 신발 OEM 모범사원 벤치마킹 투어.
짧은 그들의 만남이 더욱 깊은 울림으로 기억되도록 추억의 소스를 듬뿍 준비했다.

신짜오, 니하오의 콜라보레이션

새벽같이 공항을 찾았다. 이미 하루 전에 도착한 장천제화대련유한공사(이하 HSD)
황문걸 부장과 모범사원 두 명은 화승비나 최원형 계장을 비롯한 6명의 모범사원을 애타게
기다렸다. 생각보다 늦게 공항에 도착한 화승비나 모범사원들의 얼굴이 초췌하다.
한국도 처음일 텐데 부산 연산동 화승그룹 사옥으로 함께 가는 길, 그들 눈에 비친 모든 것이
낯설 테다. 8층 화승엑스월 대회의실에서 이들을 기다리는 회장실 김영덕 이사. 드디어
중국과 베트남이, 그리고 화승그룹이 만났다. 환영의 시간, 인사를 하고 르까프 신발을
선물로 받은 화승 글로벌 신발장이들.





1 고무 소재로 고무가 만들어지는 공정.
2 화승소재의 스케일이 남다른 라인.
3 한발 앞선 화승R&A 생산 시스템.
4 방문단을 반겨주는 화승R&A 백대현 사장.
5 누리마루에서 힘찬 비상을 약속하며.
6 화승R&A 본관에서 단체 기념촬

화승 신발의 허리들, 화승 고무의 산실을 만나다

설렁탕으로 맞이한 아침. 입맛에 맞을까 고심한 건 기우에 불과했다. 너무 맛있다며 금세 보인 그릇을 확인하고서야 마음이 놓였다. 든든함으로 버스에 올라 화승그룹 자동차부품 사업군의 메카, 양산 화승R&A로 향했다. 모범사원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백대현 사장. 2002년부터 7년간 화승비나 사장직을 맡았던 그에겐 방문단이 자식 같기만 하다. 눈에 익은 직원을 보는 그의 눈은 이미 촉촉이 젖어있었다. 중국과 베트남에서 근무하지만 우리 모두 화승그룹 식구이며, 자부심과 열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 좋은 추억은 덤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그들의 발길은 화승소재로 이어졌다. 화승그룹의 근간이 되는 고무산업, 그 고무의 원천이 되는 고무 소재 가공 현장으로 첫발을 내디딘 것. 작은 고무 알갱이가 고무가 되고, 이 고무가 화승그룹의 고무 관련 부품사업으로 이어지는 현장을 한 발, 한 발 걸어가며 화승의 숨결을 함께했다. 이어 FL생산 고압라인에서 로봇의 첨단 기술을 목도하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가끔 눈이 마주치는 작업자들과 인사를 하며, 한국에 온 것을 실감하는 그들. 성능 평가실에 이어 SL생산, FL생산 저압라인까지 그들은 놀라게 한 건 바로 정리정돈이다. 있어야할 자리에 있고, 필요한 사람에게 쓸모 있는 클리어한 라인. 모든 것의 시작은 실수를 줄이는 것에 앞서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자기 점검이라는 것을 배운 교훈의 시간이다. 라인 투어를 마치니 특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화승R&A에 왔다면 꼭 이곳 식탁에 앉아 봐야 할 것. 해물짬뽕국에 짜장밥, 야채춘권에 돈육채 고추볶음. 중국, 베트남의 점심을 떠올리며 두고 온 동료들을 생각한다.

부산을 만나고, 부산의 신발을 신다

부산 하단과 모라에 소재한 두 회사의 벤치마킹 투어를 마치고 해운대 숙소로 향했다. 마침 휴가를 나온 황국희 이사가 한걸음에 달려왔다. 누나이자 언니인 그녀를 부산에서 만난 그들은 마치 몇 년은 못 봤던 사람들처럼 포옥 껴안는다. 둘째 날, APEC이 열렸던 동백섬 누리마루를 산책하고 2014 부산국제신발섬유 패션전시회 참가를 위해 센텀시티 벡스코를 찾았다. 한국 신발의 트렌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신발에 대한 비전을 함께 찾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사람들. 매 순간이 벤치마킹이었다. 오늘 저녁 이들을 경주로 보내면 이들은 경주 투어를 마치고, 서울로. 서울 투어를 마친 후 중국, 베트남으로 향한다. 그들을 보내기도 전에 울컥, 마음이 쓰리다.

그들의 기억 속에 한국은 어떤 의미로 남을까

중국, 베트남에서 화승 신발의 허리 역할을 하는 그들. 주재원들과 작업자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며 화승의 신발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든 그들. 한국 연예인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가족을 위한 인삼에만 관심을 보이던 그들. 아내와 아이 이야기에 친구가 되었던 그들이 벌써 그립다. 짧은 이틀을 함께하며 화승비나 ME공정의 슈퍼바이저 띵이 말했다. 베트남에 오면 꼭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말만으로도 너무 고마워서 덜컥 약속을 하고 만다. 10월에 베트남 호찌민에서 만나자고, 꼭 그러자고.

다시 만난, 베트남

그들을 처음 만난 김해국제공항, 떠나보냈던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그들과 다시 광활한 베트남 동나이성 연짝공단 화승비나에서 조우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14,000명 신발 작업자와 80명 화승비나 한국 주재원의 사이를 잇는
화승 신발의 다리와 허리 역할을 하는 그들을 현장에서 마주했다.
어떻게 그곳에서 월 250만 켤레의 신발이 생산될 수 있고, 무엇이 그들의 신념을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두 눈 똑똑히 목격했다.

1 ME 부서 Tien (띵) **2** 2공장 제화 작업자 LAN (란) **3** 프레스 공무 관리자 Phat (팟) **4** 롱탄 재봉 관리자 PHUC (푹) **5** 1공장 제화 관리자 Hop (홉) **6** 3공장 재봉 관리자 Be (베) **7** 홉의 집에 모여 담소를 나눈 우리들.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났다

10월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지켰다. 그룹사보 겨울호 베트남 특집 기획! 호찌민 공항에 내려 동나이성 연짝공단 화승비나로 가는 길. 2004년, 2009년, 2012년에 이은 네 번째 방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길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그림도 달랐다. 1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화승비나의 정문을 지나 본관을 향했다. 반갑게 맞아주는 총무팀 최영훈 부장과 최원형 계장, 그리고 모든 일정을 함께할 재간둥이 교육팀 정영섭 대리와 만났다.

한국 벤치마킹 투어, 그들이어야 했던 이유

슈퍼바이저, 매니저, 헤드, 노조 간부인 작업자인 6명의 방문단. 벅찬 가슴으로 그들이 일하는 곳을 찾았다. ME 부서, 1공장, 2공장, 3공장, 프레스, 롱탄, 각 1명씩 그곳을 대표하는 관리자급 직원인 그들은 혁신교육에 있어 가장 많은 제안과 실행을 해왔다. 이것은 공정에 있어 작은 변화들을 불러왔다. 하나씩 바로 잡고, 줄이고, 정리해 절감과 효율을 이끌어 냈다. 그런 그들에게 더 큰 세상을 마주하는 기회가 필요했고, 그렇게 한국 벤치마킹 투어를 떠났던 것이다. 돌아온 후에 쉴 틈도 없이 눈과 가슴에 담았던 것들을 하나, 둘씩 꺼내 여전히 제안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

생활 속으로 은밀하게 스며들다

화승비나와 가장 인접한 곳에 위치한 홉의 집을 찾았다. 딸 둘과 어린 아들을 둔 홉. 아내는 친정에 잠시 가고, 딸들이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가 준비해 둔 차를 함께 마시며 그들에게 꿈을 물었다. 화승은 우리에게 두 번째 고향과도 같은 곳, 화승이 잘 되어야 우리도 잘되고, 우리 가족도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들. 깊은 숨을 들이셨다. 머나먼 베트남에서 확인한 현지 직원들의 화승 사랑을 한국에 근무하는 화승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안고. 맛있는 저녁을 함께 한다. 해운대의 밤을 이어…

Writer 김병호 그룹홍보팀 과장 + Photo 정영섭 화승비나 교육팀 대리

One Day, 화승비나

베트남 모자 논, 전통 의상 아오자이, 쌀국수, 베트남 만두 짜조,
하노이 하롱베이, 호찌민 사이공 강... 이런 흔한 베트남 말고,
화승 사람들이 숨 쉬는 진짜 베트남이 여기 있다. 우리에겐 낯설지만,
그들에겐 익숙한 하루. 그 호흡의 사이사이를 함께 걸어가 보자.

미인대칭 비비불로 여는 활기찬 아침

서로 바라보면 미인이 되어서 미인대칭인가. 한 달에 두 번,
미인대칭 비비불*로. 더욱 따듯하게 변화한 화승비나의 아침.
함께 모여 소통하고, 함께 부딪혀 식구가 되는 시간이다 .
한국과 베트남의 경계를 허물고, 눈높이를 맞추는 고마운 배려.

*비난, 비평, 불평 대신 미소지으며 마음을 표현하고, 먼저 다가가 인사함으로써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대화로 신뢰를 쌓으며 칭찬을 통해서 타인을 동기 부여하는 미인대칭 비비불 원칙.

일상의 행복, 출근길

14,000명이 우르르 몰려오던 2년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통근버스거나 바이크거나. 그들의 아침은 안전을 모토로 한
운동으로 바뀌었다. 여느 출근길처럼 웃음과 긴장,
피곤함이 섞인 일상의 아침.

진심이 담긴 신발을 만드는 현장

당신이 신는 신발이 아니라 내가 신는 신발을 만드는
작업자의 미소. 전 세계인의 발걸음을 행복하게 하는
아디다스, 리복이 바로 이곳, 화승비나에서 이들의
손길로 만들어진다. 한 땀 한 땀 들인 정성이
아름다운 진심 한 켤레.

작업 현장만큼이나 치열한 사무실

현장을 서포터하는 사무실 직원들의 하루도 바쁘게
돌아간다. 안과 밖, 겉과 속. 모두가 견고해야 진짜
신발이 만들어지듯 이들도 그들도, 그들도 이들도
하나라는 이름으로 화승 사람들이 된다.

맛있는 점심, 그리고 여유

5,000명의 작업자들이 한꺼번에 식사를 할 수 있는 화승비나의
식당. 날마다 소풍을 가듯 이 시간만큼은 그들에게 가장
행복한 여유가 된다. 가끔 고향에 계신 부모님,
동생 생각도 나는 화승비나의 맛있는 점심시간.

퇴근, 하루를 내려놓는 시간

아침의 질서가 그대로 이어진다. 그들에게 1순위는 부모.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에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그린다.
어떤 반찬으로 맛있는 저녁을 먹을까.
어떤 놀이로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

짧아서 더 달콤한 휴식 시간

한켠에 등을 대고 앉아 웃음을 나눈다.
미니 족구를 하기도 하고, 제기차기를 하기도 한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기도 한다. 그들의 자연스러운 일상,
그 휴식 안에선 모두가 생활 여행자가 된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캔미팅

머리, 다리가 없는 통자인 캔. 자유롭게, 격의 없이,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며, 기를 채워주는 짧은 미팅.
임원 캔미팅은 아이디어를 스피디하게 나누어 생각을
더 크게 증폭시키는 화승비나의 뇌 운동이다.

베트남에 숨겨진 두 개의 화승

Writer 김병호 그룹홍보팀 과장 + Photo 정영섭 화승비나 교육팀 대리

또 하나의 화승비나, 화승롱탄

화승비나에서 차를 타고 30여 분 가면 또 하나의 화승비나가 기다린다. 화승비나와 장천제화대련유한공사의 가피를 생산하는 화승롱탄. 남다른 스케일의 공정과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라인, 컴퓨터 시스템으로 생산의 미래를 여는 내일의 현장, 이곳에서 세계적인 신발 공장의 숨은 면모를 마주했다.

리복 가피 생산의 거점

2007년, 화승비나는 롱탄에 공장을 하나 짓는다. 1,400명의 직원, 월 45만 족의 신발 가피를 생산하는 화승롱탄은 화승붕타우와 더불어 가피 생산의 거점이라 할 수 있다. 현재 21개 라인에 향후 6개 재봉라인을 증설할 계획으로 또 하나의 화승비나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83년 동양고무에 입사해 인도네시아, 화승비나까지 화승의 신발통인 염규오 부장은 현지 직원들과의 열띤 회의에 여념이 없었다. 한국 벤치마킹 투어 방문단 중 한 명인 푹이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이곳, 바로 여기에서 신발 부품 산업의 내일을 보게 되었다.

공정의 미래를 앞당기는 컴퓨터 시스템

총 14대의 컴퓨터 시스템이 쉴 새 없이 돌아간다. 컴퓨터 자동화 시스템으로 스티칭 작업이 한창인 이 곳. 사람을 대신한 컴퓨터가 24시간 공장을 돌리는 풍경에 절로 입이 벌어진다.

화승 사람도 몰랐던, 화승비나네트웍스

한국 사람들의 주방에 하나씩은 꼭 있는 오뚜기 후추, 이 오뚜기 후추 원재료의 50%를 납품하는 곳이 베트남 호찌민의 중심에 위치한 화승비나네트웍스란 사실을 아는가. 7년, 베트남의 숨겨진 자원을 찾아내 전 세계로 무역의 길을 터 온 화승비나네트웍스의 작은 도전. 화승 사람도 몰랐던 이곳의 비밀은 무엇인가.

맨땅에 헤딩하는 재주

2007년, 화승네트웍스가 베트남의 문을 두드렸다. 글로벌 원재료 무역을 위한 첫걸음! 화승비나네트웍스(이하 HSVN)는 그렇게 첫 탄생을 알렸다.
매년 성장세를 이어온 HSVN은 후추, 계피를 비롯한 농산물, 그리고 화승그룹 사업의 근간인 천연고무에서 우드펠렛, 원사로까지 그 사업 영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07년부터 HSVN을 책임지고 있는 김민선 과장은 올해 초 인사를 묻는 연락에 태국에 있다고 답했다. 거래선 확보를 위해 말레이시아에서 태국 국경지대까지 차를 몰고 새벽 운전을 하고 있던 순간. 맨땅에 헤딩하듯 베트남에 와서야 영어를 배웠고, 이제는 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잘생긴 현지인이 된 그. 한동안 한국에서 후추를 뿌릴 때마다 그가 생각날 듯하다.

후추와 고무, 그 사이의 사람

물불 가리지 않고, 도전에 도전을 거듭하고 있는 HSVN. 현지 6명의 직원들이 후추, 천연고무에 이어 제대로 된 먹거리 발굴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다.

Writer 정영섭 화승비나 교육팀 대리 + Photo 정영섭 대리, 김병호 과장

화승비나, 우리 동네를 소개합니다

화승비나에서 먹고 자고 일하는 2년 사이에, 이곳은 저의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화승비나에 오는 분들이 꼭 가봐야 할 곳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호찌민에서 멀리 떨어진 공단에 위치한 동네지만 이곳도 사람 사는 곳이라 맛도,
멋도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신선한 베트남 우유를 마음껏! 롱탄 우유 시장

베트남에서 신선한 우유를 맛본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남북으로 길게 늘어선 지리적 구조와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유통 산업 때문이지요. 하지만 화승비나에서 멀지 않은 롱탄 우유 시장에는 매일 신선한 우유가 판매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질 좋은 우유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승비나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우유 생각이 간절해 동네 마트에 갔더니 흔히 말하는 멸균 우유와 전지 우유만 떡하니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이 우유들의 유통기한은 6개월이 넘는답니다. 한국에서 마시던 신선한 우유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알게 된 롱탄 우유 시장. 마치 분유를 마시다 모유를 마실 수 있다는 행복한 소식을 들은 기분이었달까요? 이곳에 가면 3가지 종류의 우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설탕이 들어간 달콤한 우유와 설탕이 없는 우유 그리고 요거트 우유까지. 화승비나에 오시면 롱탄 우유 시장에서 베트남의 신선한 자연을 마셔보세요.

아침에 가기 좋은 롱탄 시장

아침, 저녁이면 롱탄의 마을 골목길 곳곳에 장이 섭니다. 이곳에서는 동네마다 크고 작은 시장이 거리 가장자리를 메우고 수많은 먹거리와 상품이 판매되는, 흔하면서도 정겨운 풍경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동네에도 제대로 된 시장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롱탄 시장인데요. 롱탄 시장에는 약 100여 개의 점포와 아이들 과자부터 옷, 신발, 생활용품까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곳에 오면 우리나라 재래시장과 느낌이 비슷한 풍경에 놀랄 겁니다.
지치고 힘들 때면 롱탄 시장을 찾으세요. 이른 아침부터 상인들의 부지런한 움직임과 손놀림을 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힘찬 에너지가 차오르는 느낌을 받게 될 테니까요.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동네 식당 러우 칸

베트남의 현지 식당은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맛도 좋기에 즐겨 찾곤합니다. 그중 러우 칸은 위치상으로도 화승비나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식사를 하면서 수많은 오토바이와 사람들의 행렬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사방으로 열린 풍경을 바라보며 운치 있는 식사도 가능합니다.
특히 오징어 구이와 해산물 볶음밥은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메뉴지요. 거부감 없이 입에 착 붙는 맛은 직접 맛보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또 한국의 치킨과는 조금 다르지만 잘 구워진 치킨 요리도 별미 중에 하나랍니다.

쉼이 있는 이웃 공원, 롱탄 공원

살짝 포만감이 느껴진다면 산책만큼 좋은 소화제도 없습니다. 롱탄 공원에 가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는 수백 그루의 고무나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낮보다는 선선한 저녁 무렵 롱탄 공원을 찾아가 보세요. 연인들의 달콤한 속삭임과 휴식을 찾아 나온 베트남 가족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만으로도 힐링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길거리에서 파는 간식거리를 빼놓으면 섭섭하겠지요?

저녁은 든든하게 염소고기 풀코스 바짱

열심히 일한 당신, 몸나게 먹어라! 이게 뭔 뚱딴지같은 소리냐고요? 무더운 베트남 날씨에 땀을 흠뻑 흘리며 일한 당신이라면 당연히 활력을 보충해주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베트남 최고의 스태미너 음식이라면 단언컨대 염소고기입니다. 한국에서는 귀한 염소 요리를 여기선 아주 저렴하고 다양한 종류로 맛볼 수 있습니다. 염소 구이는 기본이고, 염소 카레탕, 염소 고기볶음, 염소 내장 수육 그리고 베트남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은밀한(?) 염소주 한잔이면 그날의 피로는 물론이고 다음 날의 활기찬 하루까지 약속받을 수 있답니다.
대신 이곳의 염소고기는 한정 판매입니다. 늦게 가면 고기가 다 팔려서 맛보기 어려우니 반드시 오후 7시 전에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 몇 번이나 허탕을 치고 돌아와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의 피로는 마사지로 풀자

주말은 모두가 기다리는 리프레시의 시간! 마땅히 즐길만한 여가 시설이나 놀이 시설이 많지 않은 롱탄에는 숨겨진 피로 회복제가 있습니다. 바로 마사지숍. 한국에서라면 살짝 부담되는 가격 때문에 쉽게 찾기 힘들겠지만 롱탄의 마사지숍은 1시간에 약 1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발마사지에서 전신마사지까지 1시간 정도 마사지를 받고 나면 정말 10년은 젊어진 느낌! 마음마저 개운해지는 롱탄의 베트남식 마사지, 화승비나에 오시면 꼭 한번 들러보셔야 합니다.

서민적인 풍류가 흐르는 야간 포장마차

일상의 시름과 아픔 그리고 소소한 기쁨을 소주 한잔에 따라 마시면 시인이 되기도 하고 철학자가 되기도 했던 우리네 포장마차를 기억하시나요? 월급날이면 퇴근 후에 삼삼오오 모여 한 달간의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던 공간, 포장마차.
이 포장마차가 베트남에도 있답니다. 목욕탕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앉은뱅이 낮은 의자에 소반만한 테이블이 전부인 소박한 베트남 포장마차. 서민적인 곳이기에 가격도 착하고, 맛은 더욱 착한 이곳에서는 눈빛만 마주쳐도 금방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 신기한 힘이 있지요. 메뉴는 닭발과 낙지구이 그리고 간단한 해산물이 전부이지만 큰소리로 노래를 불러도 누구 하나 흉보지 않는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입니다.
가족과 모여 앉아 하루의 일과를 나누는 연인, 친구들 그리고 왁자지껄 별스럽지 않은 이야기에도 까르르 웃는 사람들 속에 잠시 앉아 있자면 사람 사는 정에 물들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베트남의 문화를 느끼고 싶다면 베트남식 야간 포장마차에서 베트남 소주 한잔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호찌민에서 제법 떨어진 동나이성 롱탄에 무슨 재미난 일이 있겠느냐고들 하지만 골목 사이사이 숨겨진 보물 같은 재미가 숨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결코 빈곤하지 않은 넉넉함이 있는 우리 동네. 언제든지 화승비나로 오세요!
진흙 속에 다이아몬드를 찾는 재미를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화승비나 교육팀 정영섭 대리였습니다.

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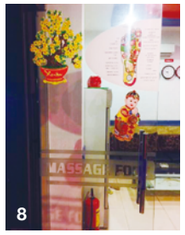
2

3

5

6

7


8

9

1, 2, 3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은 동네 식당 러우 칸
4, 5 수백 그루의 고무나무가 높이 솟아 산책하기 좋은 롱탄 공원
6, 7 바짱에서 맛볼 수 있는 풀코스 염소 요리
8, 9 1시간에 1만 원, 마음까지 개운해지는 롱탄의 베트남식 마사지숍
10 사람 사는 정을 느낄 수 있는 롱탄의 야간 포장마차

10

Writer + Photo 정영섭 화승비나 교육팀 대리

화승비나 사내 복지

모두가, 화승 사람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인도도, 말레이시아도, 베트남도, 그 어디에 있든 화승 사람은 모두 화승 사람입니다.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화승 사람들을 위한 화승비나의 사랑은 남다릅니다. 현지를 감싸 안는 진심이 있기에
믿음은 더욱 견고하고, 결과는 더욱 확고합니다. 사람 속에 답이 있고, 진심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호찌민 어디에도 없는 화승비나 유니버시티

화승비나의 저력은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적극적인 CSR 활동으로 화승의 이미지를 재고하고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의 모범 사례가 된 화승비나는 교육이 가장 큰 복지라는 생각으로 화승의 경영철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흘간의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신입직원 교육, 화승비나 직원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2일간의 혁신학교 교육, 1일간 팀 시너지를 키워주는 원팀 스피릿 교육, 현지 직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영어, 한국어, 베트남어 어학 교육, 그리고 준비 중인 e-Learning Program까지. 화승비나는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 마인드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현장을 개선하고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그중 교육팀의 빼놓을 수 없는 자랑, 코스모스 강당은 컨퍼런스와 집체 교육에 가장 적합화된 시설로 호찌민 전체를 통틀어 가장 멋진 교육 장소라고 확신합니다.

작업자들의 아이들을 위한 화승비나 탁아소

베트남의 뜨거운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동나이성에는 제대로 된 교육 기관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단위 공단이 들어선 연짝현에는 많은 작업자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기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시설이 없었습니다. 화승비나는 연짝현에 작업자들의 복지를 위해 연짝 탁아소를 설립하고 작업자들의 자녀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자녀들까지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중입니다. 토요일에 운영되지 않는 대다수의 베트남 탁아소와는 달리 화승비나의 연짝 탁아소는 토요일에도 작업하는 작업자들을 위해 쉬지 않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많은 지역 주민들과 화승비나 직원의 자녀들이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푸동마을에 제2의 탁아소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병원 부럽지 않은 화승비나 의무실

14,000여 명이 근무하는 화승비나에는 작업자들이 질병에 걸리면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의사 선생님 5명과 간호사 등 10여 명의 의료진이 활동 중입니다. 특히 여성 작업자가 대다수인 화승비나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임산부들을 정기적으로 검진하며, 출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여 건강한 출산을 돕고 있습니다. 화승비나 의무실은 인근 지역 사회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오픈된 또 하나의 병원이기에 더욱 의미가 남다릅니다.

책 읽은 마을 화승비나 도서관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 생산을 높일 수 있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화승비나는 이 질문의 답을 '책을 읽는 화승비나의 독서 문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바쁜 생산 현장이지만 점심 후 낮잠 대신 한 권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6500여 권의 책을 구비하고, 매월 100여 권의 신간을 구입하여 최신 정보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관심이 높은 육아, 출산, 패션, 요리 등의 잡지를 정기적으로 구매하여 도서관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화승비나 도서관은 일일 약 100여 명의 작업자들이 이용 중이며, 점심시간과 임산부들이 한 시간 일찍 퇴근하는 3시 30분에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입맛을 제대로 살리는 한국 주재원 식당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쉬어야 한다는 것이 화승비나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해외에 주재하다 보니 낯선 환경과 음식이 맞지 않을 수 있기에 편안한 기숙사와 영양가 있는 한국 음식을 제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리자들의 건강은 화승비나 식당의 자랑인 몸에 좋은 웰빙 음식이 지킵니다.
매주 비빔밥 데이, 뚝배기 데이, 분식 데이, 삼겹살 데이와 더불어 싱싱한 야채와 과일 등으로 영양만점의 식단을 준비하여 맛있고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Writer 김병호 그룹홍보팀 과장 + Photo 정영섭 화승비나 교육팀 대리

화승비나 이계영 대표이사

리더는. 함께. 불타오른다.

화승비나가 아주 젊어졌다.
대표이사가 젊어져서가 아니다. 수시로
소통하며 만연했던 무관심병을 함께 치유하고,
말로만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직접 행동하며,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보듬어 안는 이계영 대표.
1987년 한미통상을 시작으로, 화승비나 대표에
이르기까지 27년 신발 한 길을 걸어온 그에게
가장 큰 영광은 바이어들에게 신발 OEM 기술,
개발 분야에 있어 최고의 찬사를 받을 때와
아디다스 그룹으로부터 스피드상을 받았을 때이다.
한국 주재원과 전 작업자들이 합심해 기술을
넘어선 품질에 대한 집착으로 몰드, 패턴, 신규자재
개발은 물론 QSM(Quick Start-up Management)
부서를 가동해 생산과 납기를 준수해 온 덕분이다.
그에게 있어 신발에 대한 신념은 남다르다.
더 정확하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늘 묻고, 확인하고, 되새기는 그.
때문에 가끔은 직원들이 피곤해 한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그는 팀워크를 위한 신념을 굽히지 않는다.
화승비나 사람들이여, 부디 나를 따라와 주길!

회사는 단지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함께
커가는 곳이다.

아디다스, 리복 신발을 생산하는 화승비나는
전 세계 30여 개 아디다스 공장 중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OEM 오더 케파(Capacity)를 월 315만 족으로
인증받은 얼마 전,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1980년대 화승의 최대 케파였던 족 수를 훨씬
초과하는 결과였기에. 화승 제2의 도약이 시작된
베트남에서 이제 제3의 도약을 준비할 때이기에
그의 어깨는 더욱 무겁다.
요즘 화승비나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은 덕분이다.
교육팀 신설에, 사내 대학에, 내부 강사에
외부 컨설팅까지 더해져 생산성 향상에만 몰입했던
과거를 비웃듯 직원들의 능률도 결과도
모두 A^{+}로 돌아섰다.
회사는 단지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함께 커가는
곳이라는 철학을 화승비나 HR에 그대로 녹였다.
B2C(Business to Consumer)는 아니지만,
심지어 B2B(Business to Business)의 현지
대표기업이지만 고객을 위해 더욱 지역과 밀착하고,
보이지 않는 공헌을 통해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화승비나.
스스로 불타오르는 리더에서 함께 불타오르는
리더로 지금의 화승비나를 이끄는 이계영 대표.
그의 길은, 신념의 길이다.

理想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꿈꿨던 어딘가 있을 그곳
이상적인 이상향을 향해가다

옷 잘 입는 꽃할배, 그리고 두 남자의 간지 Up 프로젝트

뉴욕이 아닌 부산에 세계적인 패션 디렉터 닉 우스터가 있다? 없다?
소문의 진상을 밝히고, 스타일 한 수 배우고자 박원오 사우(화승소재 생산팀),
김태형 사우(화승엑스월 관리파트)가 대청동으로 출동했다. 양복을 재단하고 있던 할아버지,
아니 여용기 마스터 테일러를 보는 순간 딱 닉 우스터다 싶었다. 다부진 체격에 중후한 슈트,
염색하지 않은 흰 머리칼과 수염… 한국에선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멋쟁이 꽃할배 여용기를
만난 박원오 · 김태형 사우! 과연 그들은 꽃할배에게 전수받은 팁으로
이상적인 스타일로 거듭날 수 있을까?!

TV, 블로그, 잡지에 옷 잘 입는 할아버지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여용기 마스터 테일러. 그는 세계적인 패션디렉터 닉 우스터와 비교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스타일이 멋스러워 '남포동의 닉 우스터'라는 애칭도 가지고 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해도 벌써 수천 명이 넘었을 만큼 인기 스타다.
매일매일 올라오는 SNS의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어떻게 이렇게 젊은 감각을 유지하는지, 절로 입이 떡 벌어질 지경이다.
실제로 만난 여용기 마스터 테일러의 스타일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은근하고 자연스러운 멋이 느껴졌다고 해야 하나. 남성 슈트를 만들어온 35년간의 내공이 온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어린 시절, 형에게 옷을 물려받는 것이 싫어 옷에 대해 남다른 애착이 생겼다는 여용기 마스터 테일러. 그는 19세에 재단 일을 시작해 10년 동안 돈이 아닌 기술 하나만을 바라보며 재단을 익히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29살에 어엿한 양복점 사장이 됐고, 한동안 그의 삶은 탄탄대로였다. 하루에 양복을 다섯 벌을 만들 정도로 바쁘게 살았으니 말이다. 하지만 기성복에 밀려 맞춤 양복점은 하나둘 사라져 갔고 결국 그의 양복점 역시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다.
"부산엔 항구가 있어서 늘 해외 문물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산에서 먼저 유행이 시작되어 서울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도 발달하고 패션이 세계화가 되어서 그런지 시발점이 바뀌더라고요. 거기다 맞춤 양복의 재단 방법으로는 기성복의 유행을 따라갈 수 없었으니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쉬움을 내비쳤지만 유행이 돌고 돌 듯, 그에게도 기회의 차례가 돌아왔다. 그리고 지금은 좀 더 젊은 층을 겨냥한 슈트 라인인 '더 매료'의 마스터 테일러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

Editor 이영진 Writer 박치선 그룹홍보실 대리 + Photo 류병문

Cooperation 매료(www.maeryo.co.kr)

"요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옷은 예전 재단사들 말로 하면
'맞지 않는 옷'입니다. 뭐든 더 좁게, 더 짧게 줄여달라고
하니까요. 처음엔 적응하기가 참 힘들었지만 젊은층의 니즈를
반영하려 노력하니 이젠 제가 더 젊어지는 것 같네요."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젊은 감각을 발 빠르게 흡수하면서
청년들의 스타일을 제대로 만족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꾸준한
등산으로 다부진 체격을 만들고, 수염도 기르며 일부러 머리
염색을 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그에게도 변치
않을 세 가지 원칙은 있다. 바로 좋은 원단을 사용하고
열정적으로 재단한 옷을 잘 관리해가며 입을 것.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입는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닌 그에게
마지막으로 화승 두 남자를 대신해 옷을 잘 입는다는 것,
즉 이상적인 패션에 관해 물었다.
"패션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봤을 때 예쁘면 그게 좋은 거지요. 개성을 존중한
스타일이야말로 이상적인 패션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용기 마스터 테일러의 말을 교훈 삼아 박원오 · 김태형
사우가 패션왕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각자의 개성을 한껏
살린 스타일로 변신을 시작한 그들. 놀라지 마시라. 개봉박두!

"패션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봤을 때 예쁘면 그게 좋은 거지요.
개성을 존중한 스타일이야말로 이상적인 패션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승엑스월 관리파트 김태형 사우

• 자칫 잘못하면 솔가디건은 몸 불편한 어르신(?) 패션이 될 수도 있다. 모델은 기본적으로 평균 이상 키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솔가디건도 멋스럽게 소화할 수 있다.

• 여전히 유행하는 카키색 면바지. 타이트한 핏(fit)으로 복숭아뼈와 만나는 지점으로 맞추면 바지 주름을 잡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구두 라인도 선명하게 보여 다리가 길어 보인다.

화승소재 생산팀 박원오 사우

• 세월이 흘러도 멋스러운 패턴, 체크. 흰 바탕에 파란색 체크 셔츠에, 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진한 청색의 3버튼 체크 재킷으로 코디했다. 재킷 컬러에 맞춘 푸른 넥타이와 어느 옷에나 어울리는 검정 스카프로 스타일의 화룡점정을 찍었다.

• 평범한 면바지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스타일은 달라진다. 밑단을 롤업해 경쾌한 느낌을 살리고, 밋밋하지 않은 모카신 스타일의 검정색 구두로 포인트를 주었다.

빠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삣이야, 삣!

날씬했었다. 키는 평균 이상에 체격도 호리호리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타고난 옷발 덕분에 내딛는 발걸음에는 늘 자신감이 넘쳤었다. 눈치 빠른 사람은 알 거다. 지금 한 말들이 모두 다 과거형임을…. 그렇다. 6개월 전의 이야기다. 1년 만에 무려 10kg의 살들이 몸에 붙었다. 누군들 찌고 싶어서 쪘겠느냐마는 해도 너무했다. 불과 1년 전 옷들이, 지금은 입으면 터질 것 같고 아예 들어가지도 않으니 말 다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삣(fit)!"이라고 말하던 그는 오늘,
단점은 커버하고 장점은 살려 완벽한 핏을 보여줄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고 싶다. 제발 다시 멋있어지고 싶다.

후줄근한 회사 잠바에 편해도 너무 편해 보이는 넉넉한 통바지,
그리고 누가 부르면 언제든 신고 뛰어 나갈 수 있는 운동화.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다. 입사 초만 하더라도 마른 듯 다부진 체격에 나름 '깔롱'도 부리고 다녔건만. 결혼하고 아이가 생김과 동시에 아이 위주의 삶이 시작되었다. 어느덧 그의 패션은 무릎이 탁! 튀어나온 트레이닝복을 빼놓고는 논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자, 이제 변할 때다. 오늘이야말로 패션 심판의 날이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옛날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길 바라본다. 그룹에서 단 두 명에게 허락된 절대 간지, 그동안 잊혀진 자신을 돌아보며 잠시나마 인생역전의 패션왕을 꿈꾼다.

잠시나마 패션왕을 꿈꿔도 될까?

알려주고 싶지 않은 진짜 맛집

사진도 없다. 지도도 없다.
심지어 가게 상호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이상한 맛집 소개를
해보려 한다. 순식간에 맛집으로
유명세를 탈 수 있는 스마트한
세상, 사장님께는 죄송하지만
정말 이 가게만큼은 줄을 서서
먹고 싶지 않다는 일념과 맛집을
소개하라는 편집부의 압박이
부딪혀 기획된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나만의
맛집'. 화려하진 않아도, 간판은
없어도 단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숨은 맛집을 조심스레
공개한다!

Editor 이영진 Writer 심일욱 그룹홍보실 사원 + Photo 류병문

아따 요집 밥은 갈치 백반인교? 추어탕인교?

부산 중앙시장 간판 없는 추어탕 정식집

부산 범천동 중앙시장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김이 솔솔 올라오는 간판 없는 가게가 하나 있다. 안을 들여다보니 허름하고 몇 안 되는 테이블에 장보다 허기진 배를 채우러 온 손님들로 북적댄다. 가게의 메뉴는 딱 하나, 추어탕 정식뿐이다. 테이블에 앉으면 인원수에 맞춰 순식간에 음식이 나온다. 집에서 먹는 듯 얇게 찢은 싱싱한 방아잎 한 소쿠리와 정갈한 밑반찬이 놓이고 이어 이 집의 하이라이트 추어탕이 마지막에 등장한다. 걸쭉한 국물, 잡내 없이 으깬 미꾸라지에 풋배추와 숙주를 넣고 푹 고아 산초가루 살짝 얹어 먹는 푸짐한 경상도식 추어탕 한 뚝배기다! 그런데 정식과 함께 등장하는 노릇한 갈치구이의 정체가 아리송하다. 주문 타이밍만 잘 맞아떨어진다면 고급 갈치정식 못지않은 두툼한 살덩이의 갈치구이도 먹을 수 있단다. 5,000원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밥상이다. 바쁜 손님들을 위해 미리 음식을 만들어놔서인지 가게 회전율이 높아 손님들이 금방 빠진다. 아침 7시부터 재료가 떨어질 때까지 장사를 하며 대충 점심때가 지나면 가게 셔터는 내려간다. 부산 범천동 [redacted] 맞은 편 시장 골목에 있다.

바삭하고 고소한 전통의 빈대떡에 취하다

부산 범일동 평*빈대떡

3대에 걸쳐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부산 범일동의 어느 빈대떡집. 아흔에 가까운 나이에도 정정함을 뽐내시는 2대 할머니가 운영하는 집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지만 부산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이라면 한 번쯤은 맛보았을 정도로 유명했다. 필자의 할머니도 이 가게의 빈대떡을 포장해서 가면 물개 박수 치며 좋아하실 정도로 어르신들에겐 핫플레이스로 통한다. 대표메뉴는 5,000원대 저렴한 가격의 빈대떡과 콩비지찌개. 특히 국산 녹두를 직접 갈아 암퇘지 기름으로 바삭하게 구워내 고소함까지 더한 빈대떡은 그 맛이 기가 막힌다. 얼핏 보면 너무 평범해 맛을 의심할 법하지만 먹어보면 안다. 젓가락으로 빈대떡 한 점 찢어 입에 올리고 쌉싸름한 막걸리 한잔을 쭉 들이키면 글로 표현하기 힘든 황홀한 식감이 입안에서 펼쳐진다. 질쭉하면서도 보드랍게 넘어가는 콩비지는 두부를 뽑아내지 않아 맛이 한 층 더 담백해 술안주로는 물론, 차진 쌀밥에 빈대떡 하나 올려 먹어도 일품이다. 부산 범일동 부산진시장[redacted]안쪽에 위치해 있다.

TOP SECRET

아이러니한 분식집에서 만난 깊은 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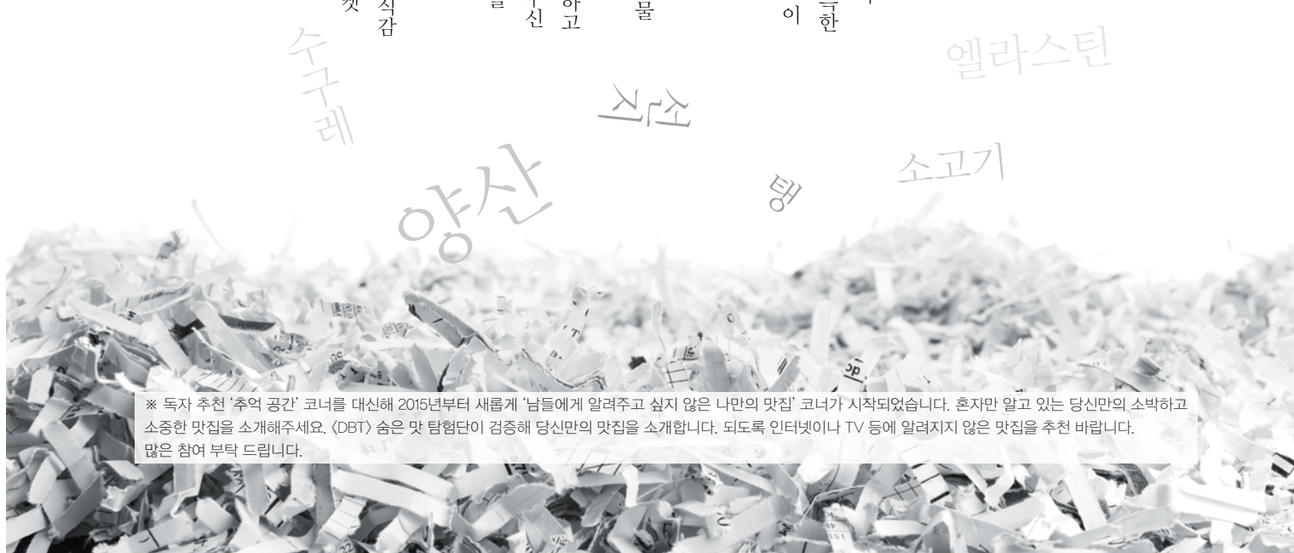
양산 남부시장 똘*분식

양산 사람이면 다 안다는 남부시장 맛집 태*양분식. '가성비 쩔어주시는' 맛과 푸짐함에 유명세를 떨치고 있지만 〈DBT〉 숨은 맛 탐험단(?)이 찾은 곳은 태*양분식 바로 옆에 위치한 똘*분식. 이곳 또한 테이블이 몇 안 되며 주변 가게들과 비슷한 음식을 제공하는 소박한 분식집이지만 사장님이 추천하는 메뉴를 맛보고 탐험단은 뭐 이런 가게가 있느냐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서프라이즈 메뉴는 다름 아닌 보리밥. 큰 대접에 윤기 가득 보리밥 한 가득 담아 두어 가지 나물 올리는 것은 여타 가게와 다른 바 없으나, 보리밥에 양념으로 넣는 된장이 정말 특별했다. 찌개 그릇에 담겨 나온 된장은 짠맛이 강해 숟가락으로 바로 떠먹기는 조금 버겁지만 몇 숟갈 떠 보리밥에 비비면 단번에 품격이 상승한다. 보리밥 주제에 명품 맛을 내는 비결은 청국장을 조금 섞은 된장에 있다. 사장님이 직접 국산 알콩을 발효시켜 띄운 청국장은 된장과 섞여 특유의 향도 줄이고 짭조름하면서 깊은 맛을 낸다. 함께 주문한 칼국수 역시 실망이 없다. 디포리로 국물을 우려내 멸치 육수 특유의 쓴맛이 덜해 좀 더 깔끔한 국물 맛을 즐길 수 있었다. 번외 이야기지만 30여 년이 넘은 똘*분식은 태*양 분식보다 6년 일찍 문을 열었으며, 똘*라는 가게명은 친한 지인의 아들 애칭에서 따온 것인데 그 지인이 바로 태*양분식이란다. 참 아이러니한 가게다.

끝내주는 식감으로 숙취인들의 입맛을 사로잡다

양산 북정동 신**이 수구레 선지 국밥

수구레라고 들어는 보았는가. 소 한 마리당 2kg밖에 나오지 않는 특수부위인 수구레는 소가죽과 살 사이에 있는 아교질성분으로 콜라겐과 엘라스틴 성분이 가득하다. 그래서 씹을수록 고소하고 탄력 있는 쫀득쫀득한 식감이 일품이라고. 구하기 힘든 부위인 만큼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없는데 이 귀한 음식을 양산 북정동에서 만날 수 있었다. 밥때가 꽤 지났음에도 홀 손님을 비롯해 포장손님까지 은근히 손님이 많다. 메뉴는 선지를 포함한 수구레 선지 국밥과 선지를 뺀 수구레 국밥 두 가지가 있다. 얼핏 보기엔 소고기국밥과 다를 바 없어 보이나 살코기 대신 수구레가 들어가 있다. 국물 맛은 소고기국과 똑같은데 수구레의 식감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소고기보다 더 끝내준다. 여러 식재료를 맛보아 왔지만 수구레만의 쫄깃하고 고소한 식감은 정말이지 "따봉!" 이란 소리가 절로 나온다. 음식을 내주신 사장님은 가끔 제사상에 올리기 위해 똑같은 방식으로 소고기를 넣고 국을 끓이지만 이 맛을 따라올 수가 없다는데 먹어보니 정말 그렇다. 함께 나온 선지 또한 신선하고 탱탱한 식감이 지금껏 먹었던 일반 퍽퍽한 선지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다. 먹는 내내 입안에서 펼쳐지는 뜨끈하고 탱글한 식감 덕에 전날의 숙취는 시원하게 안녕이다. 위치는 양산 북정동 G* 슈퍼마켓 건너편에 있으며, 딱 100인분만 만들어 팔고 문을 닫기에 조금 일찍 서두르는 것은 좋을듯하다. 가격은 5,000원.



※ 독자 추천 '추억 공간' 코너를 대신해 2015년부터 새롭게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나만의 맛집' 코너가 시작되었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는 당신만의 소박하고 소중한 맛집을 소개해주세요. 〈DBT〉 숨은 맛 탐험단이 검증해 당신만의 맛집을 소개합니다. 되도록 인터넷이나 TV 등에 알려지지 않은 맛집을 추천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화기애애(和氣靄靄) 프로젝트 '회장님의 선물'

가장 못난 엄마의 가장 행복한 이야기

Editor 김병호 그룹홍보팀 과장 Writer 황국희 화승비나 이사 + Photo 정영섭 화승비나 교육팀 대리

엄마보다 화승이 먼저였던, 화승 1호 여성임원 황국희

36년 전 동양고무의 재봉 작업자는, 오늘 머나먼 베트남 화승비나의 여성임원이 되어 화승 신발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녀에겐 가족보다 화승이 먼저였고, 나보다 화승이 먼저였습니다. 애틋한 마음을 국제전화로 달래고, 애잔한 그리움을 신발에 담아냈던 그녀의 36년, 신발 투혼. 그녀에게 현승훈 회장의 선물은 선물, 그 이상의 감사입니다. 이제는 화승만큼 가족을 더 아끼라는 충고이기도 합니다.

2012년 1월, 한겨울의 쌀쌀한 기운이 옷깃을 여미게 하던 구정 다음날,
나는 딸아이를 설득하여 롯데 호텔로 밀어 넣다시피 하며 커피숍으로 보냈다.
그곳에 가면 멋진 백마 탄 왕자님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나는 결혼 전 1980년 3월, ㈜화승의 전신이었던 당감동 동양고무에 입사했다.
결혼과 동시에 조그만 월세 방에 살면서 맞벌이를 시작했을 만큼 어려운
생활이었다. 그런 와중에도 마음속에 작지만 소중한 꿈을 키우고 있었다.
나는 직장생활로 인해 딸아이를 열심히 돌보지 못한 것이 살아가면서 늘 한이
되었다.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식부터 대학교 졸업식까지
단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한 것, 축하의 말을 전하지 못한 것이 아직도 마음의
큰 짐으로 남아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부터였던가. 바쁜 직장생활 때문에
끼니조차 따뜻하게 챙겨줄 수 없었던 엄마 아래 딸아이는 두말없이 스스로
밥 해먹는 법을 배워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예쁘고 착하게 자라주었다.
돌아보면 우리 딸아이의 고운 심성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특할 뿐이다.
1993년 8월, 동양고무가 문을 닫으면서 나는 화승 동양인도네시아로
파견근무를 떠나게 되었다. 어린 딸을 두고 외국 간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었겠는가.
어느덧 해외생활을 한 지도 21년이 지났고, 딸아이를 돌봐주지 못한 가슴 아픈
세월 또한 그만큼이나 흘렀다.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고 있을 무렵 나는
매일 저녁마다 한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감사하게도 회사는 그런 한국 주재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국제전화 카드 680분짜리를 월 한 개씩 지급했다.
해외생활 중 제일 힘들었던 때는 딸아이가 한없이 그리워지는
날이었다. 그럴 때면 퇴근 후에 전화를 해서 목소리로나마 서로의
그리움을 달래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아이는 아빠와 둘이
살면서 사춘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순하고 바르게 자라주었다.
통화할 때 마다 우리 엄마 너무 고생한다며 오히려 내 걱정에
울먹였고, 필요한 것이 있느냐고 물으면 자기는 무조건 괜찮다고
또 괜찮다고 했었다.
딸아이가 고2 때 인도네시아 동양고무에 다녀갔다. 내가 생활하는
모습을 보더니 "너무 존경스럽고 자랑스럽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그 말 한마디에 온몸이 사무치게 아픈 울음을 터트릴 수밖에
없었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안타까움과 바르게 자라준
감사함으로 딸아이와 나는 한참을 울었다.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해오면서 그때 딸아이의 말보다 더 힘이 되는 말은 없었던 것 같다.
딸아이는 대학공부를 마치고 일본으로 3년간 유학을 다녀왔다.
남자보다 여자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오랜
지론이었다. 유학을 마친 딸아이는 공항 면세점에 취업을 했고,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돈 많이 벌어 우리 엄마
호강시켜드린다"였다.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딸에 대해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 혼기가 되었는데도 결혼에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닌가. 나는 덜컥 겁이 났다. 그 동안 내가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딸아이가 결혼에 대해
나쁜 편견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 무척이나
고민했다.
나는 외국생활을 오래해서 한국에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소문하기 보다는 열심히
내 주위의 총각들 중에서 사위 감을 찾았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다!'하는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가 바로 화승비나 개발부 이동호 과장이다. 일단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딸아이를 설득시키고
이동호 과장에게도 물었더니 좋다고 했다. 2012년 1월, 둘을 만나게
해주고 홀로 집에 돌아와 가슴 설레며 딸을 기다렸다.
딸의 대답은 한마디, "별로"였다. 열심히 설득해 한 번 더 만나게
했다. 그리고 사위될 사람에게도 전화해서 마음에 들면 남자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인가 싶어 괜히 눈물이 났다.
구정휴가가 9일이라 짧은 기간에 두 번 더 만나게 하고 사위와
나는 업무 복귀를 위해 비행기에 올랐다. 그 후 사위는 딸아이가
마음에 들었는지 적극적으로 전화도 하고 편지로도 마음을

"우리 엄마가 존경스럽고 자랑스럽다"는
딸아이의 말은 내 오랜 직장생활에 있어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이다.

표현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사위가 다시 짧은 휴가를 내어 한국에 가서 시부모님 되는 분들과 딸아이와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다. 딸아이는 아빠와 단둘이 외롭게 지내와서 그런지 사돈들과 만난 후 마음에 변화가 생겼고, 두 사람은 사랑에 푹 빠진 것 같았다. 사돈 두 분의 따뜻한 사랑과 애정 덕분에 평소에 받지 못한 사람의 정과 사랑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저 결혼할래요."

얼마나 반갑던지 나는 무조건 상견례 일자를 잡자고 했다. 2012년 5월, 사돈댁과 만날 날을 정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이미 내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한국에서 직접 만난 사돈들은 너무나 따뜻한 분들이었다. 딸아이가 나에게 못 받은 사랑을 이 분들에게 충분히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 준비를 하다가 문득 딸 가진 부모라면 느끼는, 사랑스러운 딸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섭섭함과 외로움이 밀려왔다. 머리로는 이해되었지만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감정이란….

어쩔 수 없는 모성인가보다. 드디어 결혼식 아침, 분주한 마음에 서둘러 준비해 결혼식장으로 향했다. 34년을 몸담아 근무한 화승에서 보내 온 꽃다발과 회장님께서 정성스레 보내주신 꽃다발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울컥 솟아올랐다.

그동안의 고생과 수고로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행복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다. 화승그룹 가족 모두에게 감사하고 감사했다.

결혼식 사회자가 양가 부모님을 소개하며 신부 측 어머니는 대기업 화승그룹에 이사로 근무하신다고 말했을 때 그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했는지…. 엄마가 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 같아서 그 동안 딸아이에게 가졌던 미안함이 조금은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2014년 5월, 너무나 소중한 손녀 아영이가 태어났다. 살면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날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이제 딸아이의 두 번째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뜻 깊은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회장님의 선물이 무엇보다 의미 있는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다. 다시 한 번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준 화승그룹, 화승그룹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본다.

그리고 정말 늘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말을, 이 글을 빌어 말해본다. 나의 남편 김용진 씨!

"옆에서 묵묵히 믿어주고 지켜줘서 고맙고,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화기애애(和氣愛愛)프로젝트 '회장님의 선물'을 소개합니다.

화기애애 캠페인 프로젝트는 화승그룹 현승훈 회장과 전 임직원들 간의 직접적 소통을 통해 스킨십 경영을 몸소 실천하는 화승그룹 직원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love... 2014년 7월부터 시작된 '회장님의 선물' 프로젝트는 화승그룹 임직원들이 가족의 기념일을 앞두고 특별한 사연을 적어 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매달 2명씩 현승훈 회장이 휴가권 2일과 제주도 왕복 항공권 4매, 여행 경비 100만 원을 직원에게 선물하는 프로젝트입니다.

7월 화승소재 해외 영업팀 김일민 과장(아버님 생신) /생산팀 장일성 사원(아내 생일)
8월 화승공조 관리팀 조권휘 차장(마흔 다섯, 둘째를 만나다)
화승인더스트리 PET팀 신종원 사원(장모님과의 추억 여행)
9월 화승T&C 관리팀 현진화 대리(남편을 위한 휴가 선물)
화승R&A SL생산팀 정동민 사원(결혼 5주년)
10월 화승R&A 구매팀 김도연 과장(부모님)
화승특종고무(태창)유한공사[HSR] 영업팀 도정록 과장(아내 생일)
화승태양능재료(태창)유한공사[HSP] 영업2팀 유준희 계장 (아버지 은퇴 1주년)
11월 화승비나 황국희 이사(딸 결혼 기념일)
화승공조 민성진 사원(아버지 효자상)
12월 화승인더스트리 총무팀 전성미 대리(딸 생일)
화승R&A FL설계개발2팀 신은호(아내 생일)
화승소재 신재료개발팀 윤정보 주임(부모님 칠순)

화승비나 글로벌 사회공헌

조용히, 베트남을 껴안습니다

베트남은 멀어도 사랑은 멀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들을 껴안는 화승비나. 크지 않아도, 잘 보이지 않아도,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더 껴안고, 그 안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말입니다. 작은 병아리 하나도, 야자수 나무 하나도, 터전 하나도, 그들에게 행복한 삶의 방법을 배워가는 진심을 말입니다.

복지 시설 지원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탈무드의 교훈처럼
화승비나의 CSR 활동은 경제적 지원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고아원 및 양로원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의 고아원과 양로원을 찾아 결연을 맺고 찾아가 설거지나
빨래를 도와주고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할머니들의 말벗이 되어 주는 활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지속 가능한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수백 마리의
병아리와 오리를 지원하는 활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돌본 오리와
병아리들이 자라 달걀을 낳기 시작했고, 이렇게 생긴 달걀을 시장과 화승비나에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거듭났습니다. 항상 외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만 하던 고아원과 양로원은 자립적인 생산 수단을 만들고 수익을 내면서 값진
성취감과 자립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물을 키우면서 사랑을 받지
못했던 불안한 아이들의 정서가 안정되어가는 효과도 볼 수 있었습니다. 화승비나는
지속적으로 자립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CSR 활동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화승비나는 물고기를 잡기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사회공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집 지어주기

'한 명의 아동을 돕기 위해서는 하나의 마을을 도와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문제들에 귀를 기울이던 화승비나는 생산 제품의 특성상 여성 작업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가장 큰 문제가 의료와 육아로 귀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승비나는 편모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작업자들을 조사하여 약 400여 명의 가정이 편모 가정을 이루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한 명의 여성이 가족 전체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식주 문제 중 가장 큰 목돈을 필요로 하는 주거 부분의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벅찬 영역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화승비나는 매해 편모 가정 중 주거 상황이 열악한 10여 명의 작업자 가정을 선정하여 매년 집을 지어주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호찌민 원로 위로 잔치

화승비나는 10년이 넘도록 매년 원로 초청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지역사회 원로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기업과 지역사회의 동반 성장에 대한 원로들의 지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대화의 창구가 되어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연을 통해 웃어른을 공경하는 한국의 정을 나누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화승비나는 이 행사를 통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재고하고,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적, 정서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화승비나는 베트남 동나이성 12개 마을의 원로들을 초청해 참혹했던 베트남 전쟁의 아픔을 몸소 체험하신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더 나은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동나이성 주요 정부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한국 기업의 원로들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심에 감동하기도 하였습니다. 베트남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점차 희석되어 가는 웃어른 공경 문화를, 한국 기업을 통해 다시 정립되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화승비나는
지역사회 원로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적,
정서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Editor 이영진 + Photo 류병문

백혈병 소아암 환아 돕기 걷기대회

함께 걷는 걸음걸음 희망을 불어넣다

1,000여 명의 따뜻한 마음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걸었다.
걸음걸음 아이들의 완치를 기원하는 희망의 숨을 불어넣은
그 날의 기록을 여기에 담았다.

난치병을 앓던 소년에서 환아들의 희망으로

포근한 햇살이 가득하던 지난 9월 27일, 부산 어린이 대공원에서 제6회 백혈병 · 소아암 어린이 돕기 사랑나눔 걷기대회가 열렸다. 광장 한편에 마련된 화승그룹 부스로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커져 가는 와중에 오늘 행사에 초대된 특별한 한 사람이 등장했다. 바로 백혈병 소아암 환아들에게 희망의 편지를 준비해온 정재필 씨다.

5살에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았던 재필 씨. 어린 나이에 투병생활이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응급실에 실려 가는 건 기본이요, 독한 약물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지고, 한꺼번에 10개가 넘는 약물이 제 몸에 들어가는 걸 지켜보는 일은, 어린 그에겐 너무 힘든 고통이었다. 치료 과정도 고통이지만 친구조차 없는 병원 생활의 외로움이란 더 말해 무엇하나.

다행스럽게 재필 씨는 12살이 되던 해에 하나뿐인 여동생의 골수를 이식받아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한없이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쾌활한 성격도 병마를 이기는 데에 한몫 톡톡히 했다고. 종일 힘든 치료를 받으면 녹초가 될 법한데도 그는 금방 툭툭 털고 일어나 뛰어다녔단다.

희망을 나누기 위해 걷는 사람들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부산지회 후원 회장을 맡고 있는 현지호 화승그룹 총괄부회장은 "이번 행사는 화승그룹뿐만 아니라 많은 부산시민의 아낌없는 나눔을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다"며 "희망을 잃지 않고 백혈병 · 소아암과 싸우고 있는 환아 가족들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화승그룹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백혈병 · 소아암 어린이 돕기 걷기대회는 부산지역의 백혈병 ·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부산 어린이 대공원의 약 3.4km 산책 코스를 시민들과 함께 걸어가는 행사로 뭐 특별한 것이라곤 없다. 말 그대로 '걷는' 행사다. 하지만 환아들에겐 내딛는 모든 걸음이 희망의 발자국이 된다. 나무와 호수, 그리고 그곳을 손잡고 걷는 수많은 이들까지 환아 가족들에겐 특별한 희망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백혈병과 소아암은 충분한 치료만 지원된다면 완치율이 매우 높아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다. 불치병이라는 편견부터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완치되기까지 환아들이 견뎌야 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터. 화승그룹뿐만 아니라 이날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공유하고, 그 희망이 꽃피어날 수 있길 바란다.

오늘 환아들에게 읽어 줄 희망의 편지에도 재필 씨 특유의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로 그득하다.

"평범한 친구들이 많이 부럽겠지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환아들 모두 병이 완치된 후에 세상에 나와 무엇을 할지,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갈지 생각하면서 꼭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본인 역시 병만 다 나으면 평소 좋아했던 수학공부를 원 없이 해봐야겠단 생각이 들었단다. 실제로 완치 판정을 받은 뒤 수학자가 되기 위해 미친 듯이 공부에 매진했다. 그리고 마침내 성균관대 반도체공학과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해 밴드 동아리, 미팅 등 대학생활을 100% 즐기는 중이다.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저를 보며 희망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받았던 사랑을 이제는 나눠주고자 해요. 그래서 거의 매년 걷기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아팠던 기억 때문일까. 스무 살이라는 나이답지 않게 의젓했던 재필 씨는 따듯한 사랑을 품고 환아들과 함께 걷고 또 걸었다. 그의 사랑은 환아를 통해 또 다른 곳으로 전해질 것이다. 느리지만 아주 먼 곳까지 말이다.

환아들 모두 완치된 후
무엇을 할지 생각하며
이겨냈으면 합니다.

With Project ❷

Cooking

Barista

Furniture DIY

화승 꿈틀 프로젝트
꿈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꿈틀

화승 꿈틀 프로젝트 1기 엔딩파티

끝나지 않은 진심

화승그룹 사회공헌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던 〈화승 꿈틀 프로젝트: 꿈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단순 기부 형태의 사회공헌을 벗어나 화승그룹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 이번 프로젝트는 화승그룹 봉사자와
신애 재활원(부산 초읍) 장애인이 1:1로 매칭되어 바리스타, 요리, 가구DIY의 꿈을 이루기 위해
7개월을 함께 달려왔다. 2014년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꿈을 공유하고 만들었던 이들이
지난 11월 8일, 대망의 화승 꿈틀 프로젝트 1기 수료식을 가졌다.

꿈은 틀림없이 이루어졌나?

화승그룹 직접사업형 사회공헌의 첫 출발을 알리며 2014년 진행된 〈화승 꿈틀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 그리고 직원들의 진정성 있는 봉사 참여 문화 정착에 있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 '봉사자들의 진심 어린 봉사, 수혜자들이 진짜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 화승그룹은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법인 신애재활원 등 사회복지 전문기관과 함께 검토한 결과, 장애인들의 자립에 발판이 되어 줄 수 있는 중장기적 프로그램을 진행키로 했다. 과거 단순 일회성 도움이 위주가 됐던 사회공헌에서 새로운 가치창출을 목표로 7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된 화승 꿈틀 프로젝트. 봉사자와 장애인 친구들은 커피, 요리, 가구DIY를 지원했고 결과는 놀라웠다. 요리팀(4명)은 해당 요리학원에서 발행된 정식 수료증을 받았고 바리스타팀(6명)은 전원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한 가구팀(4명)은 1인당 9개의 작품을 제작, DIY 고급과정을 수료했다. 처음 프로젝트가 시작될 당시의 팀별 목표를 모두 완벽히 달성한 것이다.

봉사는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

모두가 함께였기에 가능했다. 처음 봉사자들과 만나고 10분도 지나지 않아 금세 친해져 버린 순수함의 결정체 신애재활원 장애인 친구들은, 언제나 꿈틀이들이 모이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고 한다. 아이들의 치명적인 친화력 때문이었을까. 주중에 쌓인 업무의 피로도 매주 토요일, 아이들을 만나면 금세 풀렸다며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하는 봉사자들. 처음엔 아이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봉사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봉사자가 아닌 아이들의 언니와 형이자 친구가 되었다. 장애는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임을 자연스레 배운 것이다. 함께한 것은 봉사자뿐만 아니다. 꿈틀이들의 커피, 요리, 가구DIY 세 가지 꿈을 물심양면으로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진심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화승 꿈틀 프로젝트: 꿈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내년에도 더욱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

웃음으로 시작해 눈물로 끝난 파티

2014년 11월 8일, 지난 7개월간 꿈틀이(화승 꿈틀 프로젝트 참가자를 지칭하는 단어)들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진행된 작은 파티는 신애 꿈틀이들의 화려한(?) 오프닝 공연으로 시작됐다. 처음 함께 모여 어색하게 인사하고 교육하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며 숨넘어가듯 웃었다. 잠시 잊고 있던 당시의 서툴고 어설픈 본인들의 모습에 추억이 새록새록 손발은 오글오글.
점심 즈음 시작된 행사라 초대된 손님들을 위해 요리팀이 궁중 요리 월과채를 선보이며 본격 요리 실력을 뽐냈다. 기가 막힌 맛에 여기저기서 탄사가 끊이질 않았다.
'식사 후 커피'라는 최신 트렌드에 따라 바리스타팀은 든든하게 배를 채운 손님들에게 맛있는 커피를 대접했다. 자격증을 따고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연해본 바리스타팀. 능숙하게 아메리카노부터 캐러멜 마키아토까지 시연해냈다. 전문 바리스타가 만든 황금 비율의 커피라서 그런가, 괜스레 더 맛있는 기분. 행사의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봉사자들은 시간이 흐르는 사이
아이들의 언니, 형, 친구가 되었다.

열기는 가구팀의 경매 행사까지 이어졌다. 가구 꿈틀이가 정성 들여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쁜데다가 실용적이기까지 한 가구는 치열한 접전 끝에 낙찰자에게 돌아갔다. 절대 강제적이지 않았다(^^). 웃음 가득했던 프로그램이 모두 끝나고, 파티는 곧 눈물바다가 됐다. 공식적으로 종료된 화승 꿈틀 프로젝트 1기. 영영 헤어지는 줄 알고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 덕분에 모두가 당황한 채로 행사가 급히 종료됐다.
울지 마, 친구들아. 우리가 또 놀러 갈게!

화승이랑
사랑을 일구는 사람들 화승그룹사랑나눔농장

그 두 번째 이야기

Writer + Photo 박치선 그룹홍보팀 대리

올해 4월, 화승그룹 부산경남 계열사 22가족에게 골고루 분양된 화승이랑.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나서야 그 두 번째 스토리가 완성되었다.
지난 11월 23일 일요일 아침, 상반기 수확 후 덩그러니 놓인 화승이랑은
다시 사람들의 온정을 받으며 그렇게 꽉 채워지고 있었다.

2014년 화승이랑은 부산 경남 계열사 식당에 판매한 소정의 수익금을 모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수확을 올렸다.

시커먼 아스팔트만 밟은 탓에 흙의 촉감, 흙냄새를 그리워했던 손 고운 사람들이 하나둘 화승이랑으로 모여들었다. 그간 정성 들여 키운 배추와 무를 수확하는 날이기 때문. 알록이도 있고 달록이도 있고, 잘생긴 놈, 못생긴 놈 할 것 없이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품에 안긴 배추와 무들. 저 혼자 힘으로 이렇게 컸을 리는 만무하다. 햇살 좋은 촉촉한 땅에 씨앗 뿌려 사랑을 한가득 주니 어느새 이만큼이나 자랐다. 지난여름 가뭄과 물난리 등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도 어쩜 이토록 잘 자랐는지 대견하기만 하다.

한참 수확 후, 화승이랑 식구들은 주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무, 배추 한두 포기씩을 모았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 제법 양이 많아진 배추와 무를 경남 양산에 위치한 식자재 회사에 납품했다. 화승이랑은 2014년 올해 상반기 수확물 판매에 이어 하반기에도 배추와 무를 식당에 되팔며, 소정의 수익금을 모을 수 있었다.

"내년에는 저희 2이랑 주세요!"

2015년 3월, 화승이랑은 다시 자연을 사랑하는 부산 경남 계열사 임직원과 함께할 예정이다. 우리들의 마음이 담긴 행복 나눔, 마음이 따듯한 화승 사람들의 실천 스토리가 2015년 곧 시작된다.

화승그룹 임원단
성철대종사 생가 겁외사(劫外寺) 방문

냉철한 눈으로 자신을 바로 보는 것,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한 고통을 늘 안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을 바로 볼 줄 아는
진정한 성인(聖人)이 되리라 믿습니다.
– 8月 현승훈의 화담 中 –

지난 11월 16일, 화승그룹 현승훈 회장 外 부산경남 계열사 임원 34명이 경남 단성에 위치한 성철대종사 생가 '겁외사(劫外寺)'를 방문했다. 겁외사는 한국 불교계에 큰 족적을 남긴 성철스님의 생가터에 있는 사찰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이라는 뜻을 지녔으며, 그 명(名)은 성철스님에 의해 직접 지어졌다.

화승그룹 현승훈 회장은 37년 전, 고 현수명 화승그룹 선대 회장의 49재에서 성철스님과 첫 인연을 맺게 되어 큰스님이 입적하고 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인연을 이어 오고 있다. 30년 가까이 500배를 하고, 2006년부터는 매일 아침 108배로 깨달음의 문을 두드리는 현승훈 회장은 성철 스님이 본인의 정신적 지주로서 삶과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만큼 그와의 인연을 각별히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겁외사에 도착한 임원단은 20년간 성철스님을 시봉했던 원택스님과 성철 스님의 유일한 혈육인 불필스님의 안내에 따라 큰스님의 유품 등이 전시된 생가와 기념관을 둘러보았으며, 큰스님의 업적을 다시 한 번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갈맷길 따라, 화승 따라 걷는
부산 · 경남 계열사 임원 트레킹

지난 11월 8일, 화승그룹 부산 · 경남 계열사 임원 32명이 가을을 맞아 오륙도와 이기대의 주변 일대를 걷는 트레킹 시간을 가졌다. 오륙도 해맞이 공원에서 이기대 해안 산책로를 잇는 1시간가량의 코스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오륙도(五六島)는 부산만 북쪽부터 남동쪽으로 나란히 뻗어 있는 바위섬을 일컫는다. 예로부터 부산의 상징물로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으며, 이날 모인 임원들 역시 바다 위에 펼쳐진 오륙도의 장관을 감상한 후, 이기대(二妓臺) 산책로를 따라 걸었다. 바다 내음 가득한 해안을 따라 오르내리며 기암절경과 화려한 광안대교와 해운대를 감상하며 기념사진도 찍는 등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트레킹 행사는 단순히 걷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답답한 사무실을 벗어나 그간 업무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자 마련된 것이다. 자연 앞에 겸손한 자세로 화승그룹의 화합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고자 현지호 그룹 총괄 부회장이 직접 행사를 주관하였다.

화승인더스트리, 2014 글로벌소재부품산업대전 참가

국내 대표 필름 제조업체 화승인더스트리는 지난 10월 22~24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14 글로벌소재부품산업대전에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는 정부 지원을 통해 시행된 국책과제를 우수한 결과물로 실적을 낸 업체들이 참가했으며, 그간 국내 산업 및 수출 성장의 원동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결실의 장으로 수많은 업계관계자가 참석했다. 화승인더스트리는 지난 2010년부터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함께 차세대 태양광 필름, EVA 시트를 연구, 2012년 태양광 모듈용 충진재 HI-EVA를 선보였다. KCL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태양광 필름의 수명을 25년까지 연장시키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내 최초로 EVA시트 생산 전용설비를 갖춘 화승인더스트리는 중국 태창에 2개 라인을 추가로 건설, 중국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화승인더스트리 선행개발팀 주기성 팀장은 "이번 박람회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기업들과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소재부품산업대전에 출품된 기술 이외에도 화승인더스트리는 새로운 기술을 연구 · 개발 중이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화승인더스트리는 1969년 설립 이후 종합필름업체로 성장, 2010년부터 태양전지용 시트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화승그룹 자동차부품 사업군, 모노즈쿠리로 혁신의 길을 걷다

지난 10월 24일 양산 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교토산업대학 교수인 구승환 박사의 진행으로 모노즈쿠리 개요 세미나가 열렸다. 후지모토 다카히로 동경대 대학원 교수가 제조업에 강한 일본기업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한 말인 모노즈쿠리는 물건을 뜻하는 '모노(もの)'와 만들기를 뜻하는 '즈쿠리(つくり)'가 합성된 용어로, 혼신의 힘을 쏟아 최고의 물건을 만든다는 뜻이다.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독특한 제조문화를 일컫는 이 용어는 일본 제조업의 혼(魂)이자 일본의 자존심을 상징한다. 모노즈쿠리의 교육적 해석은 고객에게 유익한 부가가치를 유형의 '물건'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로 기획, 연구개발, 구매, 생산, 영업, 협력회사, 고객이 함께 유기적으로 전체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는 혁신 활동을 일컫는다.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생산 과정에 대한 모노즈쿠리 혁신 교육의 취지와 앞으로의 교육 과정을 함께 공유한 뜻깊은 시간으로 백대현 사장을 비롯해 자동차부품 사업군 계열사의 각사 대표와 전 임원, 전 팀장이 함께했다. 백대현 사장은 "대외적으로 기술력, 경쟁력을 강화할 때이며, 내년부터 팀을 구성해 혁신적인 교육과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으로 생산기술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자동차부품 사업군 전체에 시행될 모노즈쿠리 혁신 교육에 대해 공정 체질강화를 위해 전사적으로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NEWS

화승그룹

부산을 밝힌 별들의 축제 –
제22회 부일영화상 후원

지난 10월 3일, 화승그룹이 후원하고 부산일보가 주최하는 제23회 부일영화상이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됐다. 〈명량〉이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데 이어 남우주연상에 송강호, 여우주연상에 심은경, 최우수감독상에 홍상수 감독 등 총 15개 부문에 걸쳐 수상자가 발표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서병수 부산시장, 이명관 부산일보 사장, 화승그룹 배태균 화승네트웍스 사장 등 귀빈 500여 명이 참석했다.

함께 하는 것, 바로 사랑입니다 –
KNN 사랑나눔 캠페인 촬영

화승그룹 사회공헌 〈화승 꿈틀 프로젝트:꿈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가 부산 · 경남방송 KNN을 만났다. 지난 11월, 화승그룹과 KNN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랑나눔' 캠페인 주인공에 화승그룹 직접사업형 사회공헌 〈화승 꿈틀 프로젝트〉팀이 선정돼 촬영을 성황리에 마쳤다. 화승그룹은 KNN과 함께 지역경제 살리기, 글로벌 진출, 나눔 등의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촬영된 화승 꿈틀 프로젝트 캠페인은 상반기 방영된 '화승이랑'에 이어 오는 2015년 2월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화승R&A

품질, 타의 추종을 불허하다 –
화승R&A 추종구 실장 장관 표창 수상

지난 11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제40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 화승R&A 품질본부 추종구 실장이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품질5스타 인증 획득은 물론 FL 품질시스템 정착화 기여에 큰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유공자 표창의 쾌거를 이뤘다.

화승T&C

라섹으로 다시 찾은 눈 –
진짜 철인 화승T&C 이보영 사우

그룹사보 가을호 '화승닥터클리닉' 코너를 통해 부산 서면 아이시티 안과에서 라섹 수술을 받았던 화승T&C FL생산팀 이보영 사우가 지난 9월, 제2회 포항시장배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했다. 2시간 55분을 기록한 그는 라섹 수술로 시력을 회복해 경기 출전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운동 시 안경을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고 더불어 긍정적인 마인드까지 생겼다며 내년 6월, 10월에도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할 계획임을 밝혔다.

HWASEUNG

NEWS

화승인더스트리

17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실전 같은 훈련–
아산공장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실시

지난 10월 30일, 아산소방서 주관으로 2014년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이 화승인더스트리 아산공장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됐다. 긴급구조종합훈련은 실제 같은 훈련을 통해 재난발생 시 긴급구조대응태세 및 통합 현장지휘체계 확립/ 훈련평가 및 성과측정 환류로 훈련기능 개선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아산소방서, 아산시청, 한국전력, KT, 군경, 재난본부 등 총 17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이번 훈련은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각종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이 날 듯 말 듯…?'
2014년 하반기 인사평가 필기시험 실시

화승인더스트리는 지난 10월 31일, 하반기 인사평가 필기시험을 실시했다. 이번 시험에는 2014년 사업계획에 상반기 실적에 대한 계수치를 비롯해 정치/경제/사회/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와 그룹동향 및 사보에 대한 문제 등 총 50문항이 출제되었다. 화승인더스트리는 매년 인사평가 필기시험을 통해 인사평가 총점에 10%를 반영하고 있다.

화승비나

현석호 부회장 –
아디다스그룹으로부터 최고의 스피드를 인정받다

지난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디다스 그룹 행사인 2014 adidas supplier summit에서 현석호 부회장이 영예의 Speed and agility 상을 수상했다. 매년 국가를 달리하며 개최되는 아디다스 서밋은 한해의 실적을 되돌아 보고, 우수한 생산현장에 대한 시상을 하는 행사이다. 화승비나는 납기와 민첩성에 있어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3년 연속 아디다스그룹의 최고의 파트너임을 인정받았다.

그룹 임원 인사

신임
HSD 공현배 상무이사 → 관리 / 자금 담당

전보 및 겸직
HS VINA 김진규 이사부장
HS VINA 공무담당 → HS VINA, HSD 공무담당

COMMUNICATOR

화승그룹총괄 홍보팀 김병호 과장
홍보팀 박치선 대리, 심일욱 사원
(주)화승R&A 황지회 (기획팀 사원)
(주)화승소재 임상호 (기획원가팀 대리)
(주)화승공조 조인희 (경영관리팀 대리)
(주)화승T&C 박재성 (관리팀 대리)
(주)화승네트웍스 박규안 (기획총무팀 대리)
(주)화승엑스윌 박지현 (영업지원파트 사원)
(주)화승인더스트리 김연식 (총무팀 계장)
미국 HSAA 박강찬 과장
베트남 화승비나 최영훈 부장
중국 HSD 김명호 대리
중국 HST 김성우 과장

괜찮지 않지만 괜찮다고 말했던 당신,

지금도 괜찮나요?

수년 전, 교통사고로 119에 실려 갔을 만큼 심하게 턱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기 힘들었지만 오랜만에 연락 온 어머님의 잘 지내느냐는 말에 괜찮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격으로 어머니가 쓰러질까봐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김연미

사랑했던 남자를 제일 친한 친구에게 양보하고 그들이 결혼까지 하는 것을 보며 괜찮다고 말했던 씁쓸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절대 괜찮지 않네요.

•박찬영

엄마 손에 붙들려 포경수술을 하러 갔던 쓰라린 추억이 있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을 허망하게 내놓고 수술하던 당시의 장면이 아직도 선하네요. 수술이 끝난 후, 생살을 도려낸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올 때 엄마가 괜찮냐고 물으시더군요. 남자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위해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영민

오랫동안 어머니 음식에 길들어 있다 늦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신혼 초 아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준다며 한참을 걸려 첫 요리를 선보이더군요. 정말 제 입에 맞지 않았지만 "너무 맛있다!"며 찬사를 연발한 덕분에 전… 한동안 같은 요리를 계속 먹게 되었습니다.

•홍대욱

왕초보 딱지를 떼겠다며 가끔 제 차로 운전 연습을 하던 동생. 집을 나선지 5분도 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났다며 집으로 뛰어들어오더군요. 주차된 차를 빼다 앞집 차를 멋지게 긁어놓은 동생. 부득부득 이가 갈렸지만 겁먹은 동생 얼굴을 보고선 괜찮다며 위로했습니다. 가족인데 괜찮아야지 어쩌겠습니까.

•이현희

막내 이모가 좋은 남자가 있다며 혼기가 꽉 차있던 제게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 남자의 첫인상은 마치 시골에서 막 상경한 듯해 별로였지만 이모 얼굴을 봐서 괜찮다고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괜찮아지던 이 남자. 지금은 결혼해서 잘살고 있습니다. 이모, 고마워!

•이춘임

첫 아이를 유산했을 때 남들에게 지치고 약한 모습 보여주기 싫어 "괜찮아, 또 가지면 돼"라고 했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 슬프고 괜찮지 않네요.

•전행숙

퇴근길에 친구와 캔커피를 사러 편의점에 들렀는데 예쁜 아르바이트생이 카운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카드 결제 후 전자서명란에 '예쁘시네요'라고 썼지만 냉랭한 그녀의 한마디, "영수증 필요하세요?" 친구에겐 '쿨'한 척 괜찮다 했지만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부끄러움을 주체 못하고 발길질 좀 했습니다.

•홍왕표

소위 말하는 불X친구(막역지우)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천만 원을 빌려 달라는 겁니다. 겨우 마련해서 빌려줬건만 깡통주식으로 억 단위의 돈을 날리더군요. 좌절하는 친구 앞에서는 힘내라고 위로했지만 돈을 잃은 제 마음도 함께 좌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의환

휴대전화가 보급화되지 않았던 저의 대학시절, 당시 무척 귀했던 일명 '벽돌폰'을 아시는지요. 그 귀하디귀한 휴대폰을 친구 한 명이 잠시 빌려 가더니 실수로 화장실 변기에 빠뜨리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지만 그땐 정말 괜찮지 않았어요.

•조정석

■ 2014년 화승그룹 사보 〈DBT〉 가을호 독자엽서 당첨자

여행스케치 3개월 무료 구독권

신승남(인천시 부평구 안남로), **박양승**(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정현숙**(충남 논산시 대교동), **강기임**(경남 진주시 도동로), **김미정**(충북 충주시 용산동)

우수 독자엽서에 당첨되신 분들께는 월간 〈여행스케치〉 3개월 무료 구독의 행운이 주어집니다.

1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5장

김연미(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남12길), **박찬영**(전남 진도군 의신면 칠전리), **조영민**(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72), **홍대욱**(경남 양산시 소주회야로 75), **이현희**(인천시 남동구 구월남로), **이춘임**(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홍왕표**(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32길), **인의환**(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전행숙**(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21길), **조정석**(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독자엽서에 선정되신 분들께는 1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5장이 사은품으로 발송됩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1,500여 개 가맹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개별 연락드리오며,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은 2014년 12월 30일까지 051-850-7037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0일까지 연락이 없을 시에는 당첨이 무효 처리됩니다.